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Vol. **399**
MARCH 2025 **3**

© LG Arts Center, 이승희

Cover Story **벚꽃동산**

COLUMN 산조의 멋
여기, 예술 도시 공원 걷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작 위촉곡 시리즈 I

부산, 바다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 이동훈

사회 송현민

해금 윤해승

장구 박재현

위촉작곡 이지영 박선영 이고운 손다혜

NEW COMPOSITION SERIES

Program

국악관현악
꿈의 바다 (2004년 위촉 작품)

국악관현악
귀향 (위촉 초연)

해금 협주곡
생각이 향하는 대로, 음악이 이끄는 대로 (위촉 초연)

동해안 장구를 위한 협주곡
대미 (위촉 초연)

국악관현악을 위한
수심(水深)을 넘어 (위촉 초연)

2025. 3. 27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5

2025년 부산도슨트과정 7기 회원모집

장소 부산도슨트협회, 부산 해운대 영무파라드호텔 2층 세미나실

회비 50만원(총12강) 계좌번호 : 국민은행 672101-04-413486 부산도슨트협회

문의 사무국 010-5656-7393

교육 목적

21세기 문화를 풍요롭게 할 '도슨트'라는 전문가를 양성시킴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미술, 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가교역할과 미술관, 갤러리, 각종 아트페어에 작품해설 및 안내를 하여 대중의 보다 쉬운 이해와 접근을 돕고자 한다. 그리하여 작가와 관람 대중을 위한 문화콘텐츠 발전과 도슨트협회 회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7기 교육프로그램

회	월/일	교육내용	강사
1	4/7 (월)	개강식(30분)	박덕남 부산도슨트협회회장
		도슨트역할과 이해(스크립트 작성부터 해설까지)	정연은 동아대 외래교수, CPBC "화요명화산책" 진행
2	4/14 (월)	한국근대미술사 읽기	구본호 예술학박사, 전)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관장
3	4/21 (월)	세계미술관 투어_루브르박물관, MoMA편	백경원 전)동아대학교대학원외래교수
4	4/28 (월)	조선의 공기, 허리숙인 화가의 눈	우승우 전)계명대외래교수
5	5/12 (월)	미술작품으로 읽는 서양미술사	문지현 기장미술협회 회장, 부산도슨트협회 부회장
6	5/19 (월)	현대미술의 태동과 정착(1800년대이후)	배선주 한솔미술공예협회이사장
7	5/26 (월)	동시대미술(1960년대이후)	배선주 한솔미술공예협회이사장
8	6/2 (월)	명화와 함께하는 치유여행	김 경 특수교육학박사, 미술치료학박사, 부산대 외래교수
9	6/9 (월)	오픈 갤러리_미술품 거래와 아트테크	엄청하 한국리더십센터 센터장
10	6/16 (월)	독일미학의 DNA를 읽다	안장혁 동의대 교수
11	6/23 (월)	위대한 예술가, 괴테를 만나다	안장혁 동의대 교수
12	6/30 (월)	존 버거의 미술사 다르게 보기	이상일 전)고은사진미술관 관장
		종강식(30분)	박덕남 블루아트페어 위원장

※ 월요일 저녁 6시30분~ 8시30분 2시간(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교육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슨트 프로그램은 상반기, 하반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도슨트 프로그램 상반기반, 하반기반(총 24강) 실무강의 10시간 이수 및 정회원 가입 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98th
을숙도 명품콘서트
“국향만리”

무엇을봐도
민우혁

지휘
홍희철

부산국악오케스트라(BKO)

현기
이영희

사물놀이
연희퍼포머그룹 처랏

민우혁 *With*
2025 신춘음악회

2025. 3. 8(토)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공연 예매하기



예술감독&해설
이동신

예술감독&해설
오충근

톡!톡!톡! (Talk)

실내악 페스티벌

2025. 3. 19 [수] ~ 22 (토)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2025. 3. 19 [수] 7:30PM

현악4중주 & 피아노5중주

2025 BSO 솔로이스츠 체임버 시리즈 III (예술감독&해설 오충근)

1st Vn. 김주영, 2nd Vn. 손은혜 / Va. 박지수 / Vc. 정지은 / Pf. 강형은

2025. 3. 20 [목] 7:30PM

현악4중주

Lumen Festival quartet (예술감독&해설 이동신)

1st Vn. 정원영, 2nd Vn. 신호은 / Va. 황여진 / Vc. 양욱진

2025. 3. 21 [금] 7:30PM

목관5중주 & 금관5중주

2025 BSO 솔로이스츠 체임버 시리즈 IV (예술감독&해설 오충근)

Fl. 이주형 / Ob. 조성현 / Cl. 백동훈 / Bn. 양희경 / Hn. 이민정
1st Tp. 최혁준, 2nd Tp. 김희수 / Hn. 강민주 / Tb. 손무정 / Tba. 서영찬

2025. 3. 22 [토] 5:00PM

레이디스 필 앙상블 (예술감독&해설 이동신)

Vn. 조은비, 심해수, 진혜빈, 정희수 / Va. 최영화 / Vc. 전수정
Cb. 임미형 / Pf. 이수민 / Per. 최예나

주최 해운대문화회관

주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영아츠컴퍼니

티켓 R석 2만원 S석(2층) 1만원

인터넷예매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 할인 초·중·고, 예술인패스 소지자(30%), 누림회원(40%),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20명 이상(50%)

전화예매 051)749-7651 ※ 학생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매표소 현장확인 후 티켓 발권 /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해운대문화회관 예매처

메멘토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6회 정기연주회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Sergei Rachmaninoff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작품번호 43
Rhapsody on a Theme of Paganini, Op. 43

교향곡 제2번, 작품번호 27
Symphony No.2 in E minor, Op.27

연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지휘 백승현 | 피아노 박종해

2025. 4. 1. 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관람료 전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607-6000(ARS 1번)

《2024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최우수 공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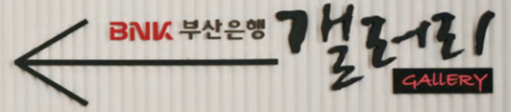
강아지똥



2025. 04. 12(토) 11시, 14시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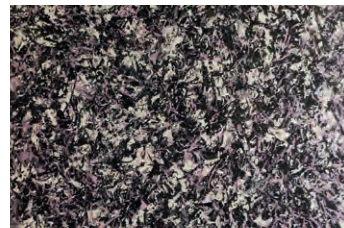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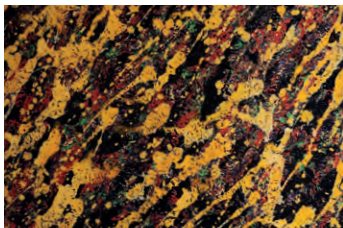
BNK부산은행 갤러리가 2011년 개관 이래,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고양하고, 지역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예술가들이 풍부한 작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BNK부산은행의 이러한 행보는 문화 향기 가득한 도시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그 두근거리는 설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전시안내

이미라 개인전 : 무채색의 향기 3월 5일(수)~3월 14일(금)



이기태 개인전 3월 17일(월)~3월 24일(월)



제너회 부산중구미술인협회전 : 봄빛, 초록바다에 물들다 3월 25일(화)~4월 3일(목)



BNK부산은행갤러리 대관 신청은
부산은행갤러리 홈페이지(www.bnkgallery.co.kr)를 통해 가능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중앙로13 BNK아트시네마 2층
T.051-246-8975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MARCH 2025

VOL. **399**

발행인 차재근

편집인 남영희

홍보마케팅팀장 남양욱

편집위원 김성필, 박소윤, 박진홍, 박창희, 이정호, 최찬열

편집장 정복엽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5년 2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 10 COLUMN
산조의 멋
- 12 여기, 예술
도시 공원 걷기
- 14 CULTURAL ISSUE
프랑스 음악에 붙은, 라벨
- 16 무대 뒤 사람들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
- 18 현대미술산책
몬드리안이 꿈꾼 유토피아
- 26 Cover Story
연극 '벚꽃동산'
- 30 Preview
- 41 Program Guide
- 52 New Book
- 53 BSCC News
- 56 2025 시즌프로그램 안내

산조의 멋

글 이정호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국악작곡가

국악의 대표적인 민속 기악곡 중에 '산조'라는 음악이 있다. 산조는 시나위 같은 민속기악합주곡에서 파생되어 독주악기로 연주되면서 기교가 확대되었고, 거기에 판소리의 선율들과 합해지면서 산조의 형식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진양조의 느린 장단에서 시작하여 중모리, 중중모리를 거쳐 점점 빨라지며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의 아주 빠른 장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속도와 리듬 속에서 선율들이 자유롭게 춤을 춘다.

아주 기교적이며 깊이 있는 성음이 요구되는 이유로 대다수의 국악 연주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이 산조음악을 연구하고 내공을 만들어 간다. 류파에 따라 휘모리, 단모리 장단이 빠지기도 하고, 엇모리, 굿거리 장단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류파'라는 것은 그 가락을 구성하고 작곡한 이의 이름을 따른다. 예를 들어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라고 하면, 강태홍 명인이 가락을 정리한 가야금산조라는 것이다.

산조는 19세기 말 김창조 명인의 가야금 산조를 시작으로 거문고, 대금, 해금, 피리, 아쟁 등의 악기가 산조로 생기며 발전하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전해지는 산조는 각 악기에 따라 그 종류가 많은데, 가야금에는 앞서 언급한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비롯하여, 김병호류, 김죽파류, 서공철류, 김윤덕류, 성금연류, 최옥삼류 등과 거문고에는 신태동류, 한갑득류, 대금에는 박종기류, 한주환류, 한범수류, 이생강류, 서용석류, 강백천류, 원장현류, 김동진류 대금산



조 등이 있고, 피리에는 이충선류, 정재국류, 박범훈류, 서용석류, 해금에는 지영희류, 한범수류, 서용석류, 김영재류, 아쟁에는 박종선류, 윤운석류, 박대성류, 김일구류, 이태백류 등이 있으며, 이 밖에 각 악기마다 여러 연주자들에 의해 근래에도 새롭고 특색있는 산조들이 각각의 뛰어난 예술성을 뽐내며 탄생하고 있다.

여러 가락과 장단 속에 각 류파마다 각기 다른 매력들과 분위기로 깊은 맛을 들려주는 산조. 선율적으로는 조성의 변화들이 많고, 리듬적으로는 정해진 박자 위에서 자유롭게 변화되는 등 음악의 깊은 예술성을 보여준다. 위 산조 중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와 박대성류 아쟁산조는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부산지역에서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산조이다.

현대에 들어서 이 산조를 기악독주곡으로 연주하는 것을 넘어 대편성 관현악에 협연하는 협주곡 형태로도 많이 발표하고 있다. 필자의 국악관현악 작품 중 ‘김동진류 대금 산조협주곡 <부활>’은 제목에서 보이듯이 김동진류 대금 산조 가락을 국악관현악과 함께 협연 형태로 연주하는 곡이다. 전통 민속기악독주곡인 산조를 협주곡으로 만들어 창작국악 장르로 불러들인 것인데, 이는 산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김동진류 대금산조가 전통의 모습에서 현대적 이미지가 더해져 많은 관객들의 마음에 새로운 모습으로 각인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 애원성과 절도있는 가락이 돋보이는 김동진류 산조에 국악관현악의 장중함이 더해지고, 산조의 민속악적 선율과 서양화성의 클래식한 국악관현악의 색다른 융합으로 기존의 다른 산조협주곡과 차별성을 두면서 음악의 정답이 아닌 또 하나의 다양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깊이 있는 내면의 소리는 울림 또한 강하다. 가야금산조 작품 ‘김윤덕류 가야금산조협주곡 <꿈>’은 또 다른 다양성을 부여하며, 깊은 가야금의 울림을 더욱 극대화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에 대해 좀 더 깊게 설명하자면,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의 깊은 농현과 변화무쌍한 선율은 남성적인 장중함을 보여준다. 이 특징의 극대화를 위해 관현악 저음의 활용도를 높여 장중함을 더

하였으며, 또한 이는 가야금산조와 관현악의 음역 차이를 두으로써 발현악기인 가야금 가락이 관현악에 덮이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다. 그리고 김윤덕류 가야금산조에 리듬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싱코페이션(syncopation)과 헤미올라(hemiola) 등의 다양한 리듬 변화를 깨지 않게 함과 아울러 그 리듬의 맛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관현악 대선율과 엇박자 리듬세션을 교차 배치하였다.

추상적 기법을 도입하여 음의 색채를 그리듯 관현악 표현을 하였다.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특유의 리듬감과 선율은 추상적이고 몽환적인 이 그림 위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며 한 음 한 음 음의 색을 발현하고 있다. 피카소의 그림 <꿈>이 이곡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입체적 느낌을 더하기 위해 붓이 그림 위를 터치하듯 관현악의 2도 음정의 불협화음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며 생동감을 준다.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다웠던 그 꿈은 아련하기만 하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 기억이 꿈이었는지 현실의 추억이었는지조차 모르게 희미해져 있다. 이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는 마치 장자의 호접지몽에서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던지, 나비가 내가 되어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꿈과 현실, 서로 다른 두 세계의 경계는 어디일까? 같은 산조 가락 바탕에 전혀 다른 관현악 색채를 곡의 처음과 끝에 배치하며 꿈과 현실의 알 수 없는 경계를 표현하였다.

위 작품들 외에도 산조협주곡 중 ‘강태홍류 가야금산조협주곡 <시간의 흐름>’은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시간의 윤회성에 대해, ‘김병호류 가야금산조협주곡 <푸른 사막의 여정>’은 끝없는 사막의 한가운데 서서 바라보는 밤하늘을 표현하였다.

산조를 통해서, 그리고 산조 기반의 창작국악 작품들을 통해서 산조의 맛을 알게 되기를 바라며, 이 시대를 살면서 전통의 소리를 가치있게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숙명적 의무를 한 발짝 한 발짝 힘찬 발걸음으로 행하며 가보겠다.

도시 공원 걷기

글 박소윤 (재)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식물들의 뿌리가 물기 머금은 땅속을 더듬으며 뻗어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하늘을 향해 큰 잎, 작은 잎 손을 내밀고, 가지 끝에서는 꽃들이 태어난다. 식물들은 어디랄 것 없이 땅에 흐드러지지만, 사람들은 식물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따로 구성하고 배치한다. 그 배치의 공간이 정원이다.

정원의 역사는 실로 오래되었다. 기원전 3000년대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왕실의 정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중세에는 교회가 수도원 내 밀폐된 정원을 소유했다. 정원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자연이다. 담장은 개인이든, 기관이든 소유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원에는 담장이 없다.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모두의 자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공원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도시 정원이다.

최초의 공원은 스페인 카롤링 왕조에서 시작되었는데 약 1000년경 「공공정원 조성에 대한 법령」에 의해 프라도 공원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도시계획에 따른 대규모 공원 조성은 1850년대 프랑스가 처음 시도했다. 1852년 나폴레옹 3세가 과거 왕실의 숲이었던 볼로뉴 숲을 공공의 숲으로 조성하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888년 인천에 각국공원(현, 자유공원)이라는 서양식 공원이 처음으로 조성되었다. 자연이 왕과 귀족, 종교지도자들의 정원으로 소유되었다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원으로 확장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정다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땅에 쓰는 시>(2024)는 우리나라 1세대 조경가 정영선의 조경 철학과 작업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선유도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인간의 삶이 자연

의 풍경 속에 살 부릴 수 있는 다정하고 따뜻한 곳이 공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공원이란 것이 행복한 사람이 와서 행복하게 노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못할 때, 혹은 울고 싶을 때 살아가다 보면 울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나도 그렇지만. 공원이 그런 것을 잘 새겨내 줄 수 있어야 해요.”

(정영선 인터뷰, 다큐멘터리 <정원으로 가는 길> 중에서)

주로 아파트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공원은 자연의 생기를 느낄 수 있는 마당이다. 마천루가 빼곡한 뉴욕 한복판의 센트럴 파크, 도심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파리 센 강변의 씨티로앵 공원은 도시거주자들에게 공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리적 위치로서 보여준다. 공원은 일상의 휴식이자 위로이며, 성찰의 장소이기에 일상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토록 아름다운 정영선의 공원도 전시장(국립현대미술관, 2024. 4. 5. ~ 9. 22, <이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에 갇히는 순간, 매마른 황무지가 되고 만다.(필자가 찾았을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가는 식물들을 보고 안타까웠다.)

스위스의 사회학자이자 예술가인 루치우스 부르크하르트(Lucius Burckhardt)는 국가정원박람회와 같은 이벤트는 인간의 목적에 의해 설계된 기교적 자연일 뿐이라며, 더 나은 녹지시설과 도시재생을 위해 건축, 도로, 주거 등 주변의 공간을 생태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책을 통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을 시각의 통합 행위로 보면서, 산책의 즐거움을 예술적 행위로 승화시켰는데, 작품 제로미터 산책(1985), 타이티로의 여행(1987), 횡단보도(1993), 운전자 산책(1993), 빌라 메디치 여행사



부산시 영선동 골목

(1998)가 대표적이다.(박현정, 「도시 산책과 문화생태학적 의미-독일의 도시재생과 산책학」, 『예술하는 일상』, 호밀밭, 2024. 참고)

이 작품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 장소를 ‘걷는 퍼포먼스’였다. 이를 통해 도시의 생태적 회복이라는 사회적 메시지와 함께 예술 행위를 완성한 것이다. 그런 의미라면, 도시의 모든 장소는 산책이라는 미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대규모 공원이 아니더라도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동안의 가로수길, 쌈지공원, 공터들 모두 확장된 의미의 공공의 정원, 곧 공원이 된다.

부산은 2000년대 초부터 도시 전체를 공원화하기 위해 관공서를 중심으로 담장 없애기 사업을 시행했다. 2008년에는 부경대학교가 담장을 허물고 캠퍼스 내 녹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시설 몇몇은 오후 6시를 기점으로 관내 마당, 주차장, 정원들을 폐쇄함으로써 도시 산책의 흐름을 막곤 한다. 보행로의 회복은 도시거주자들에게 도시를 자유롭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보장하는 일이고 도시라는 공원을 온전히 제공하는 것이다.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는 걷기 행위란 보행자가 지형학적 시스템을 전유하는 과정이며, 공간 구조 속에서 걷는 행위는 연속적인 만남과 상황의 결과로 보았다. 도시를 걷는 것은 도시의 지형을 보행자의 삶과 연결

하는 과정이고, 건물, 사람, 나무, 도로, 혹은 날아오르는 새들과의 만남은 사유와 감정의 촉발로 이어져 예술적 기쁨을 갖게 하는 일이다. 같은 길도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 날씨가 만드는 온도와 물기, 가게에 진열된 상품들, 만나는 사람들, 길가에 핀 꽃들로 인해 모두 다르게 다가온다. 이처럼 공간은 시간과 결합하는 매 순간 다른 풍경이 되며, 그것을 촉각하는 보행자의 사유와 감정에 다양한 미적 점화를 일으킨다.

사진작가 최민식의 사진집 『Human』 시리즈를 읽다 보면 작가가 걸었던 길을 따라 걷게 된다. 작가가 걷는 동안 만났던 사람, 시장, 거리를 통해 느낀 당대의 시대 분위기와 역척스럽게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따스한 감정을, 타자인 우리가 오늘에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2023년 고은사진미술관의 <도시산책자: 울리히 뷔스트의 사진>(2023. 7. 22. ~ 11. 5.) 전시회에서도 동베를린의 도시 풍경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진들을 통해 우리는 그 시간의 동독 거리를 마주할 수 있었다.

영화 <땅에 쓰는 시> 속 사람들은 계속 걷는다. 걷는 곳은 공원인데 사실 그것은 일상의 거리와 구분이 없어 도시 전체를 걷는 것과도 같았다.

천천히 발끝에 닿는 길의 촉감을 느끼면서, 걸어 본다. 걷다 보면 만나는 것들이 참 많다. 걷는 동안 만난 모든 것이 때로는 내 안에서 그 무엇으로 맺히기도 한다.

프랑스 음악에 붙은, 라벨

글 송현민 음악평론가

음악회에 해설자로 오를 때가 있는데, 간혹 이 작곡가를 이렇게 소개하곤 한다. “그는 우리에게 늘 붙어 있는 작곡가입니다. 옷의 안을 보면 늘 ‘라벨’이 붙어 있지요.” 모차르트, 베토벤이 친숙하다해도 어감상 ‘라벨’만큼 친숙한 작곡가는 없을 것이다. 올해가 라벨 탄생 150주년이다.

‘볼레로’의 주인공



모리스 라벨(1875~1937)은 드뷔시(1862~1918)와 함께 프랑스 대표 작곡가나, 인상주의 음악가로 묶인다. 하지만 드뷔시가 몽환적인 분위기로 제압하는 몽상의 시인이 라면, 라벨은 명료하면서도 화려한 언변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낭만의 웅변가다.

그의 대표작은 ‘볼레로’이다. 사실 라벨의 ‘볼레로’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라디오 피디들이 선곡 시 ‘살짝’ 피하는 곡이다. 조용한 도입부가 무음(無音)의 방송사고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목만 지나면 대중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리듬의 향연이 펼쳐진다.

라벨과 스트라빈스키의 일화에서도 라벨 음악의 묘미가 잘 드러난다. 라벨은 연하인 스트라빈스키를 존경했지만, 스트라빈스키는 라벨에게 “이건 스위스 시계공의 음악이다”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스네어드럼이 연주하는 단 하나의 리듬 패턴이 340마디를 ‘정확히’ 채우며, ‘명확히’ 169회 반복되기 때문이다(참고로 이 곡을 연주할 때 오케스트라의 드럼 주자는 지휘자만큼 중요해 때로는 지휘자 바로 앞에 배치하기도 한다).



실제로 라벨의 부친은 시계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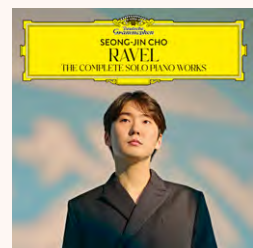
점차 커지는 리듬의 향연은 흥분을 일으킨다. 마지막 2마디에서는 모든 것이 폭발한다. 라벨이 소리로 빛은 시계, 아니 시한폭탄이 폭발하는 순간이다.

‘탄생 150주년’이라는 의미

작곡가들의 탄생이나 서거 주기는 그의 예술과 작품이 부활하는 시간이다. 2023년에 탄생 150주년과 서거 80주년을 동시에 맞은 라흐마니노프는 위대한 피아니스트들에 의해 생일상을 제대로 받았다. 같은 해 탄생 210주년을 맞은 바그너도 그러했다.

이러한 기념해가 뭐 그리 대수일까 싶겠지만, 사실 유럽에서 이들의 작품은 단순히 ‘음악’이 아닌 ‘무형유산’이나 ‘문화재’에 가깝다. 즉 여흥을 일으키는 가벼운 예술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예술사를 일군 위대한 유산이다. 그래서 이러한 유산과 주인공들을 기리고자 노력한다.

대표적인 경우는 콩쿠르이다. 2015년에 조성진(피아노)이 우승한 ‘쇼팽’ 콩쿠르는 폴란드-프랑스의 쇼팽을 기리며 동시에 쇼팽의 후예를 발굴하고자 만든 장이고, 2022년 임윤찬이 우승했던 콩쿠르의



주인공 벤 클라이번 역시 미국 클래식 음악사에 기록된 위대한 음악가였다. 이처럼 작곡가의 탄생 연도가 50년, 100년, 150년, 200년 등으로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면 음악계는 그를 위한 기념비들로 가득 찬다.

피아니스트를 기리는 피아니스트

조성진(피아노)은 미리 라벨의 기념비를 준비했다. 작년 11월에 녹음해 올해 1월에 내놓은 그의 음반 2종에는 각각 라벨의 피아노 독주곡과 피아노 협주곡이 담겨 있다. 특히 독주곡 음반은 라벨의 피아노곡을 한데 모은 ‘전곡집’이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반 영웅 ‘조성진’은 물론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쿠프랭의 무덤’, ‘거울’,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 ‘물의 유희’ 등을 모두 담낼 수 있다.

협주곡은 안드리스 넬손스가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녹음했다. 참고로 라벨과 조성진은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동문’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라벨 사랑은 각별하다. 1월 25일 콘체르트하우스(빈)를 시작으로 2월 카네기홀(뉴욕)과 월트디즈니 콘서트홀(LA), 바비칸센터(런던) 등 유명 콘서트홀에 올라 음반에 담긴 라벨의 음악들을 실연으로 풀어냈다.

9년 만에 내한하는 파리오케스트라의 곡목에도 ‘라벨’이 붙어있다. 6월 14~15일 서울 롯데콘서트홀 공연에는 핀란드 출신의 젊은 지휘자 클라우스 메켈레는 물론 임운찬의 협연도 만날 수 있다. 파리오케스트라는 ‘파리의 음악사’를 다진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과, 무소륵스키가 작곡한 ‘전람회의 그림’을 라벨이 재편곡한 버전을 선보인다.

프랑스 연주자들도 동향의 선배를 기리는 무대를 준비 중이다. 8월 28일 서울 금호아트홀연세에는 장-에플랑 바부

제(피아노)가 라벨은 물론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 그리고 슈만의 피아노곡을 선사한다.

피아노곡으로 태어나 관현악으로도 진화

라벨이 피아노를 위해 작곡한 곡이 명성을 얻고 오케스트라 곡으로 다시 태어난 경우(편곡)도 많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곡가 중 하나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월 10일 정기연주회 ‘랩소디&카프리치오’(부산문화회관)에서 라벨의 ‘스페인 랩소디’를 선보였다. 그룹 쿼를 담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통해 한두 번 들어보았을 ‘랩소디’란 우리말로 ‘광시곡’을 뜻한다. 주로 서사적·영웅적·민족적 색채를 갖는 환상적이고 자유로운 형태의 기악곡이다. 라벨은 민족적 정서를 부각시키고자 ‘스페인 광시곡’을 작곡했는데, 스페인과 프랑스 경계 지역 바스크 출신이던 어머니의 모국(스페인)을 떠올리며 쓴 곡이기도 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외에도 여러 교향악단이 라벨의 교향곡들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휴 올프 지휘)은 5월 15·16일에 ‘드뷔시와 라벨’을 선보인다. 라벨의 ‘고귀하고 감상적인 왈츠’와 드뷔시의 ‘바다’를 함께 올려 프랑스색을 짙게 드러낸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7월에 라벨의 ‘다프네와 클로에’ 모음곡 2번과 ‘라 발스’를, 9월에는 라벨이 편곡한 무소륵스키 ‘전람회의 그림’을 선보인다. 이중 ‘라 발스’란 ‘왈츠’를 프랑스어로 발음한 곡이다. 화려한 곡이기에 공연 후 앙코르곡으로 선보이곤 하는데, 올해는 정식 곡목으로 채택한 교향악단들이 제법 많다. 더불어 상기한 파리오케스트라도 같은 곡(전람회의 그림)을 9월에 선보이니, 9월은 ‘라벨 대전’이라 할 수 있겠다. 올해 음악의 안감에 붙은 ‘라벨’을 잘 찾아보길 바라며.

1. 탄생 150주년을 맞은 모리스 라벨
2. 모리스 베자르가 라벨의 음악에 맞춰 안무한 ‘볼레로’ 영상
3. 라벨 음악을 선보인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1월 10일) 포스터
4. 라벨 피아노 작품을 담은 조성진의 음반
5. 라벨의 전통을 이어가는 파리오케스트라



무대 뒤 사람들

오페라號의 순항을 책임지다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

글 박나무 자유기고가



1991년 러시아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학교와 정부기관이 합작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동구권을 여행시키는(?) 일정이었는데, 공산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취지로 기억된다. 독일은 얼떨결에 통일을 이룬 직후 어수선했고,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로 무언가 위태위태하던 그 여름이었다.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문화적인 자존심만은 가슴 깊이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특히 음악과 음악가에 대한 애정이 깊어보였다. 그 와중에 러시아의 한 오페라극장을 방문했고, 오페라 한 편을 보았는데 애석하게 이름도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아름답고 웅장했던 볼쇼이극장이었으리라 짐작한다. 돌이켜보면 무척 아쉬운 일이다.

1990년 영동고등학교 문예부장 이의주는 어떤 후배가 “오페라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왔고,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것이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된다. 나름 클래식을 잘 안다고 자부했는데 오페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게 나름 자존심이 상했고, 며칠 후 국립극장에서 열린 오페라 <라보엠>을 보게 되었고, 숨 막힐 정도의 감동을 받고 그 길로 “나는 오페라 연출가가 될 것”을 결심한다. 그렇게 음악대학을 선택하고, 대학생이 되자마자 오페라단에 가서 조연출보를 맡고, 대학로에서 연극으로 기본기를 다진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오페라연출가 양성과정의 때마침 생기고, 그것을 이수한 청년 이의주는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로 건너가 밀바다부터 기며 연출가로서의 역량을 다진다. 제노바극장 상임연출가였던 프랑코 바키의 문하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며 협력연출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그이의 유학의 정수였다.

대학생이나 된 자가 오페라를 보며 잠들었고, 고등학생이었던 그이는 오페라를 보며 단박에 오페라에 빠져, 지금은 대한민국이 손꼽는 오페라 연출가가 되었다. 당시의 고등학생에 대면 부끄럽지만 그 대학생을 변명하자면 말도, 음악도, 배경도 모르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지금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는 관객들이 모른 채 잠 들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오페라의 중간에 나타나 관객들과 대화하기를 망설이지 않는다. 원어로 된 가사에도 한국과 부산

의 이야기를 녹여내고 또 일러준다. 옛날에 비하면 요즘의 오페라는 친절하게 스크린을 통해 자막도 보여주고 있고, 사전에 내용과 관람 포인트를 숙지하기도 용이해졌다. 그 래도 아직은 어려운 오페라의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이의주 연출가는 많은 애를 쓰고 있다.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와 오페라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두세 시간이 짧게만 느껴지고, 공 하나 하나에 열광하듯 오페라에 심어 놓은 여러 장치에 푹 빠져들게 되죠. 특히 휘몰아치듯 공연되는 오페라가수의 열창과 감동은 선수들의 투혼에 비견할 만합니다. 성악가들을 선수로 본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덕에 운영될 수 있는 점도 비슷합니다. 연출가는 그 모든 것을 조율하는 사람이죠. 오페라 연출가로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오페라 가수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지휘자 등이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 때 서로의 마음을 잘 만지지 못하면 어려워집니다. 작품에 대한 완벽한 해석은 기본값이구요. 성악가와 연주자, 그리고 지휘자, 스태프들을 한 배에 태워가는 선장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하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는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과 세상을 읽는 것도 제가 평소에 쌓아둬야 할 재산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참 대단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악기가 저마다의 선율과 박자를 가지고 어울려 있을까? 성악가, 특히 오페라 가수도 참으로 멋있다. 자신의 몸을 악기로 연주하며 동작과 연기까지 소화해낸다. 관중들의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오페라 연출가는 이 모든 것을 녹여내야 한다. 이의주는 자신감에 넘치면서 겸손과 배려를 착장하고 차근차근 계획대로 구현해내는 사람이다. 문예부장 때 이미 “예수가 세상을 구원한 33살에는 내가 <라보엠>을 연출할테다” 마 음먹었고, 국립오페라단 최연소감독으로 그걸 이루어낸다. 오페라의 본고장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받던 사람은 이제 본토의 콘테스트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성장했다. 34년 전에는 잠들었지만 이제 이의주의 오페라는 두 눈과 귀를 똑바로 열고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만 같다.

몬드리안이 꿈꾼 유토피아

글 박송화 미학연구자,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 저자



피에트 몬드리안, <회색 나무>, 1911, 캔버스에 유화, 79.7×109.1cm, 헤이그 시립미술관, 헤이그

‘분석적 입체주의’가 끝나는 지점에서 몬드리안은 시작한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3차원의 사물과 배경을 해체하여 2차원 캔버스에서 재조립하였다. 그러자 사물과 배경은 뒤섞이며 다양한 시점의 파편화된 조각이 되었고 이 조각들은 캔버스가 2차원의 평면임을 드러내면서 3차원의 형상을 자아내는 기이한 현상을 연출하였다. 화면

이 점점 조각나면서 무엇을 그렸는지 알아볼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은 결국 실험을 멈추었다. 그러나 몇몇 예술가들은 추상을 향한 분석적 입체주의의 실험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이 있다. 몬드리안은 기하학적 추상미술의 거장을 넘어 현대 건축과 디자인까지도 영향을

끼쳤는데, 직사각형의 아파트, 비스포크 냉장고, 격자무늬 인테리어 등 당장 주변을 둘러봐도 몬드리안의 유산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네덜란드 태생인 몬드리안은 아마추어 화가였던 아버지와 풍경 화가인 삼촌 곁에서 예술적 재능을 키워갔다. 활동 초기 몬드리안은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야수주의 등 선행했던 양식들을 익히다가 고향 풍경과 사람들을 화폭에 담았다. 그러다 1911년 암스테르담의 한 전시회에서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은 몬드리안은 입체주의를 정복하겠다는 일념으로 1912년 예술의 중심지 파리로 갔다. 파리에서 입체주의를 공부하면서 몬드리안은 추상미술에 대한 확신을 얻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입체주의의 한계에서부터였다. 입체주의는 사물을 재현하고자 하는 기존 미술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에 사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해체하고 재조립했음에도 그림이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끈덕지게 드러내고자 했다. 하지만 몬드리안은 기하학적 형태와 몇 가지의 색채만으로도 회화가 성립할 수 있다고 믿었다. 회화란 본디 2차원의 평면에 선과 색으로 이루어진 매체이기 때문이다. 1910년대를 물들이던 추상을 향한 열망이 몬드리안에게서도 생겨났다.

파리 시기에 그려진 <회색 나무>(1911)는 입체주의에서 나아가 부피를 느낄만한 요소를 제거하고 최소한의 색채와 선들로 나무의 형태를 표현했다. 그러자 화면에서 3차원의 환영은 사라지고 선, 색, 면이라는 미술 본연의 요소가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회색 나무>는 완벽한 추상도, 그렇다고 사물을 재현하고자 하는 구상도 아닌, 그 중간쯤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추상을 향한 여정은 예상 밖의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었다. 몬드리안은 1914년 아버지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갔고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네덜란드에서 작품활동을 이어갔다. 세상은 지옥으로 변했지만, 이 시기 몬드리안은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예술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하고 자신만의 예술세계인 신조형주의(Neo-Plasticism)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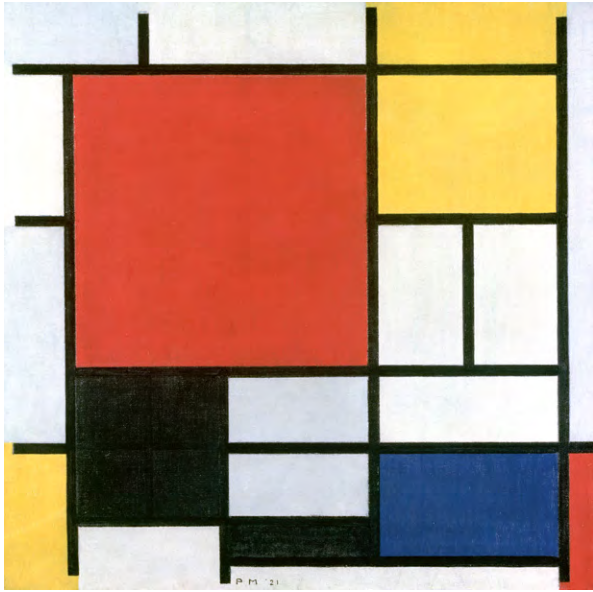


피에트 몬드리안, <구성 II>, 1913, 캔버스에 유화, 88×115cm, 크릴라-윌러 미술관, 오테를로

신조형주의는 몬드리안의 조형언어로서 회화로 구현된 보편적 세계를 형상화한다. <구성(Composition) II>(1913)은 몬드리안의 양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화면에는 약간의 곡선이 있지만, 수직과 수평이 지배적이고, 직선들은 무수한 사각형을 만들어낸다. 화면 속에는 중심도, 주인공도, 사물 사이의 위계도 없다. 다만 선과 색채로 인해 사각형이 앞으로 나왔다, 뒤로 들어갔다 하는 환영을 자아낸다. 이처럼 중심을 해체한다는 것은 대상 간의 위계와 우열을 해체하는 급진적인 일이기도 하다. 추상에 대한 탐구가 계속되면서 몬드리안의 화폭은 더욱 간략하게 변해갔다.

<큰 빨강의 면(面), 노랑, 검정, 회색 그리고 파랑의 구성>(1921)은 검은 수직선, 수평선이 화면을 여러 크기의 사각형으로 나누고, 색채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 그리고 무채색인 흰색, 검은색, 회색이 각 면에 칠해져 있다. 한편 검은색의 수직과 수평선은 사각형의 경계 역할을 하면서 선의 굵기로 인해 면이 되기도 한다. 선이 면이 되기도 하고 면이 선의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크기와 색채가 다른 사각형들은 각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자 화면에는 균형과 긴장이 함께 감돈다. 그런데 이렇게나 간단한 선과 색채, 사각형이 어떻게 보편적 세계를 드러낸단 말인가?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1915)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피에트 몬드리안, <큰 빨강의 면(面)>, 노랑, 검정, 회색 그리고 파랑의 구성, 1921, 캔버스에 유화, 59.5×59.5cm, 헤이그 미술관, 헤이그

는 몬드리안의 사각형을 보고 실소를 터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예술 작품은 자신만의 특수한 시대적, 예술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위대한 작품은 자신이 속한 배경 속에서 문제의식을 찾고 그것을 보편의 지평 위에 올려놓는다. 몬드리안이 살았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유럽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물질주의가 팽배했고, 타자(他者)를 억압하는 데 이용된 합리성과 과학기술은 결국 세계 대전이라는 대규모 학살로 변모했다. 한편 지식인과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이성 중심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종교철학의 일종인 신지학(神智學, theosophy)이 유행했다. 여러 종교와 철학을 모아 놓은 신지학은 만물에는 보편적 신성이 있으며 개별자를 초월하여 신성과 합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칸딘스키, 몬드리안과 같은 추상 화가들도 신지학에 영향을 받아 인간과 우주의 합일, 우주의 보편적 질서와 조화를 추상미술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현재의 물질세계는 너무나도 오염되어 있어서 순수한 정신을 먼저 복원해야 했는데, 화가들은 정신을 추상미술로 드러냈다.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는 잔인한 시대를 배경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염원에서 탄생했는데, 그가 꿈꾼 유토피아는 보편적이면서도 평등한 사회였고, 그러한 유토피아는 중심이 해체

된 평면 위, 삼원색과 무채색을 기본으로 한 사각형으로 표현되었다.

세상의 사물들은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를 지니기에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사물들의 형상을 간략히 하자면 수직과 수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물론 형태의 추상화는 시각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늘은 수직, 땅은 수평과 같은 은유적 방식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온갖 색채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인 빨강, 파랑, 노랑으로, 여기에 2개의 무채색인 흰색과 검은색으로 환원할 수 있다. 그 외의 색들은 본질이 되는 색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따라서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는 회화로 표현된 보편적, 본질적 진리이다. 적어도 몬드리안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몬드리안이 바랬던 유토피아는 결코 현실에 도래하지 않았다. 1930년부터 세계는 다시금 전쟁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 일어난 이 거대한 전쟁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를 집어삼켰다. 1938년, 몬드리안은 나치의 공습을 피해 런던으로 피난을 갔고, 1940년 뉴욕으로 완전히 이주하였다. 전운이 가득한 유럽과 달리 미국은 밝고 산뜻했으며 직선으로 뻗은 도로 위를 자동차들이 뿡뿡 달리고, 높은 건물이 빌딩 숲을 이루었다. 즉흥 연주로 이루어진 재즈가 도시의 공기를 채웠는데, 특히나 리드미컬한 선율이 반복되는 부기우기(Boogie-woogie)는 노(老) 화가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뉴욕의 화려한 불빛과 신나는 부기우기 리듬은 곧 몬드리안의 화폭(<브로드웨이 부기우기>(1942~1943))에서 피어났다. 다소 엄격했던 유럽에서의 작품과 달리, 노란 선들이 즉흥 연주를 하듯 화면을 가로질렀고 빨강, 파랑 사각형이 그 위를 경쾌하게 걷는 듯하다. 칠순이 넘은 구대륙의 예술가는 재즈가 울려 퍼지는 신대륙의 현대도시를 완벽하게 추상으로 구현하였다. 한편 지금껏 살펴본 칸딘스키, 말레비치, 몬드리안의 추상미술은 현대 생활을 뒤덮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현상은 20세기 초,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에서 등장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Friendly Concert

프렌들리 콘서트

꽃잎 편지 | 손정아

새야 새야 파랑새야 | 최가희 편곡

Pokare Kare Ana | 이현철 편곡

African Alleluia | J.Althouse

Domine fili unigenite | A.Vivaldi

아낌없이 꿈을 꾸는 별 | 문은정

신비한 노을바다 | 문은정

Laudate Dominum | L.Gyöngyösi

Wah bah dah bah doo bee | I.Antognini

O salutaris hostia | 국현

Pong Pong Piyangaw | M.T.Vizconde-Roldan 편곡

Dance! | R.T.Gibson

노래가 만든 세상 | 윤학준

평화의 춤 | 손민혜

이 땅에 평화가 넘치길 | 이현철



지휘자 차윤희



정관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권기원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천경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25. 3. 29.(토) 1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SUN

MON

TUE

W

사
랑
채
극
장

국악인형극 '얼씨구 왕국의 삼총사'
· 3월 5일(수)-6월 1일(일) 평일 오전 10:30(단체관람),
주말·공휴일 오전 11:00 ※ 월-화요일 공연없음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

3

4

5

부산시립교향악단 가
'부산시향의 미완성음'
전석 5천원/(재)부산

9

10

11

12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11:00, 14:00, 16:30
대 6만6천원 4만4천원/(취성크브릿지(1533-7446)
알렉세이 레베데프 피아노 리사이틀
'Beethoven & Chopin' 17:00
중 5만원·3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에디즈 클라리넷 콰르텟 창단 연주회 19:00
참 에디즈 클라리넷 콰르텟(010-2226-3611)

16

17

18

19

팬텀 스타 워즈 '부산청년 봄을 깨우다' 17:00
대 15만원·10만원·5만원·3만원/(사)부산예술후원회
(010-3940-3060, 010-2530-7568)
부산유스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17:00
중 부산유스오케스트라(010-7462-3993)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가곡의 밤
'봄과 꽃을 악보에 녹이다' 19:30
참 와이제이클래식스(010-6307-6885)

23

24

25

26

지브리 OST 콘서트: 디 오케스트라 16:00
대 11만원·9만원·6만원·4만원
두남재엔터테인먼트(주)(02-6292-9370)

아르떼 예술단 협동조합 연합 연주회 17:00
중 초대/아르떼 예술단 협동조합(070-8095-9426)

30

31

제38회 전국청소년(유·초·중·고)무용경연대회 10:30
대 부산무용협회(632-5116)
해피버스테이 피아졸라-쿠아트로시엔토스 17:00
중 5만5천원·4만5천원/스토프뮤직(02-2658-3546)

교보 노블리에 포유콘서트 19:00
대 초대/클래시그널(02-721-3452)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아메리카' 19:3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바리톤 최성규 60주년 기념독창회 19:30
참 전석 2만원/아트락(010-5468-4658)

제3회 크라운해태 한음
대 락음악국악단(010-4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아메리카' 11: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

ED

THU

FRI

SAT

1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클래식음악 콘서트
'꾸러기 음악회-행진 앞으로' 15:00
대 교문(02-547-9851)

6

회음악회
19:30
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8회 정기연주회
'(ENT)SPANNUNG' 19:30
중 3만원 2만원 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7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8회 정기연주회
'(ENT)SPANNUNG' 19:30
중 3만원 2만원 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8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11:00, 14:00, 16:30
대 6만6천원 4만4천원 / (주)쌍크브릿지(1533-7446)

안수빈 첼로 독주회 19:30
참 무료/안수빈(010-6690-7903)

13

부산시립합창단 제195회 정기연주회
'벤자민 브리튼 봄의 교향곡' 19:30
대 2만원 1만5천원 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UKO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연주회 19:30
중 UKO(010-5468-4658)

14

15

잠비나이 콘서트 with 미역수염 17:00
중 전석 4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9회 트라움 앙상블 연주회 17:00
참 무료/오민성(010-4725-7714)

20

제1249회 MBC 목요일음악회 '부산내셔널심포
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봄의 향연' 19:30
대 1만5천원 1만원 5천원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제16회 오퍼스피스트 정기연주회 19:00
참 오퍼스피스트(010-8338-7375)

21

박한나 플루트 리사이틀 19:30
참 전석 2만원(현장 구매)/박한나(010-9878-7939)

22

100세의 전설 제갈상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부산청년오케스트라' 17:00
대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가족뮤지컬 '반쪽이전' 11:00, 15:00
중 5만원 4만원(24개월 이상 관람)
협동조합 손에손에(010-8451-6149)
박시은 귀국 피아노 독주회 17:00
참 초대/박시은(010-5015-0825)

27

화-명인전 19:00
1621-5498)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9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 I '부산, 바다' 19:30
대 2만원 1만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피아니스트 홍선화 독주회 19:30
참 전석 2만원/크레센트 기획(242-8479)

28

지휘자 서희태의 특(Talk) 클래식
'파워 오브 스트링' 19:30
중 3만원 2만원 / KNN방송교향악단(850-9568)
김량하 비올라 독주회 19:30
참 김량하(010-5455-4066)

29

2025 부산시니어합창제 15:00
대 무료/부산시니어합창단연합회(010-2576-8766)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Friendly Concert' 17:00
중 전석 3천원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소프라노 김서영 귀국 독창회 19:00
참 전석 2만원/김서영(010-5812-3042)

SUN

MON

TUE

WE

전
시
실

시를 쓰는 것은, 삶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
· 3월 13일(목)~3월 16일(일) 전시실1
김충은 010-4217-2225

2

3

4

5

미술사 최형배의 오리지널 과학미술콘서트
-공룡편 11:00, 14:00
소 전석 4만원/원더매직(070-4202-2200)

9

10

11

12

16

17

18

19

제7회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시낭송대회 13:30
소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988-2427)

23

24

25

26

30

31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16:00
대 15만4천원-13만2천원
(쥬하늘이엔티(1688-6675))

ED

THU

FRI

SAT

1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10:00

대 부산광역시(888-1855)

마술사 최형배의 오리지널 과학마술콘서트-공룡편
11:00, 14:00

소 전석 4만원/원더매직(070-4202-2200)

6

7

8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14:00, 19:30

전 3만원(13세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14:00, 17:00

전 3만원(13세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3

14

15

연극 '벚꽃동산' 19:30

대 11만원·8만원·6만원·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연극 '벚꽃동산' 19:30

대 11만원·8만원·6만원·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연극 '벚꽃동산' 15:00

대 11만원·8만원·6만원·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키즈송 위드
클래식' 15:00

소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

21

22

제36회 부산중증장애인 합동결혼식 14:00

소 부산지체장애인단체(010-2108-3138)

김희재 부산콘서트 13:00, 18:00

대 15만4천원·14만3천원
(쥬박은누리(1566-9621))

27

28

29

부산시립극단 제79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오롯이 빛나는' 19:30

소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18:00

대 15만4천원·13만2천원
(쥬하늘이엔티(1688-6675))

부산시립극단 제79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오롯이 빛나는' 17:00

소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감성의 키가 한 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Kidsong with Classic

키즈송 위드 클래식

- 동요편 -

2025. 3. 15.SAT 15: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INVITATION TO THE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어댑터씨어터	0507-1388-1447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	----------



SM아트홀	1600-1602
-------	-----------

ARTS

21세기 한국을 배경으로 재탄생된 연극 **벚꽃동산**

지난해 LG아트센터가 제작하여 국내에서 역대급 히트를 친 체호프의 고전 ‘벚꽃동산’이 2025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부산에서 단독 공연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세계적인 명성의 사이먼 스톤이 각색과 연출을 맡아, 고전의 틀을 깨고 21세기 한국을 배경으로 한 ‘우리의 이야기’로 새롭게 재해석했다. 여기에 27년만에 무대로 돌아와 화제가 되었던 ‘칸의 여왕’ 전도연을 비롯하여 박해수, 손상규, 최희서, 이지혜, 남운호, 유병훈, 박유림, 이세준, 이주원 등 최고의 연기력을 갖춘 10명의 배우들이 부산에서 단독으로 사흘간 ‘원 캐스트’로 출연한다.

원작 ‘벚꽃동산’은 체호프가 폐결핵으로 사망하기 6개월 전 무대에 올린 그의 마지막 작품이다. 1905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발표된 작품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던 러시아 귀족 가문의 몰락을 담고 있다. 여기서 배경이 되는 벚꽃동산은 극 중 라네프스카야 가문의 과거 영광과 현재의 몰락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아름다운 벚꽃동산을 둘러싼 인물들의 갈등과 감정 변화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이 겪는 감정과 선택을 깊이있게 탐구하고 있다.

© LG Arts Center, 이승희



배우 전도연, 박해수 부산 관객과 만나다

고전의 재해석에 재능을 발휘해온 사이먼 스톤은 이번 작품에서 1900년 초 러시아를 오늘날 한국으로 배경을 옮겼다. 원작에 등장하는 귀족 남매는 기업의 후계자들로, 농노의 아들에서 상인이 되어 큰 부를 축적한 로파힌은 선대 회장의 운전기사 아들이어서 성공한 사업가로 바뀌었다. 모든 배우들에게는 원작의 캐릭터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면서, 전도연은 원작의 주인공 ‘뉘바’를 재해석한 ‘송도영’ 역을, 박해수는 원작의 ‘로파힌’을 재해석한 ‘황두식’을 연기한다. 이 외에도 다시는 볼 수 없을 빈틈없는 조합의 배우들은 우리가 그동안 고전으로 만났던 ‘벚꽃동산’의 인물과는 이름도, 직업도 다른 그야말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살아 숨 쉬는 인물들을 그려내며 가장 새롭지만, 가장 마음에 와닿는 ‘벚꽃동산’을 선사한다.

연극 ‘벚꽃동산’은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은 후 미국으로 떠났던 송도영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된다. 그녀가 마주한 서울은 자신의 기억과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다. 떠들썩한 사회 분위기, 자유롭고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무엇보다 그녀의 가족들이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집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사이먼 스톤은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이자 유작인 ‘벚꽃동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 배우들은 희극과 비극을 넘나들며 연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서 “희극이면서도 비극인 ‘벚꽃동산’은 한국 배우들의 놀라운 재능을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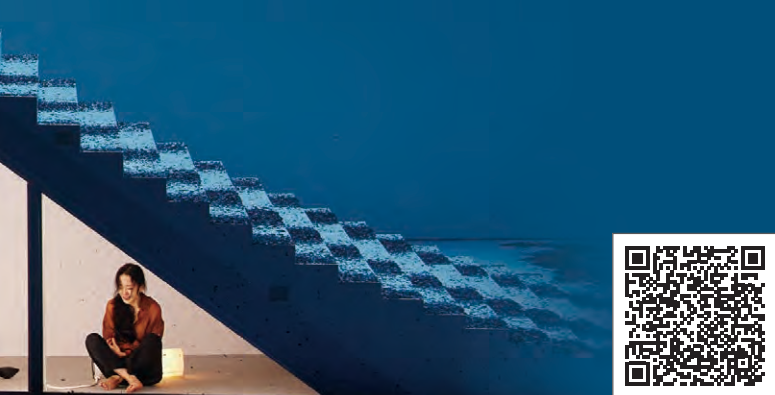


© LG Arts Center, 이슬희

줄 수 있는 작품이자 항상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한국 사회를 담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사이먼 스톤이 연출하고 사울 김이 디자인하다

사이먼 스톤은 영국 내셔널시어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 세계 최고의 무대를 오가며 작품을 올리고 있는 현재 가장 뜨거운 연출가다. 특히 연극 ‘메디아’, ‘에르마’, ‘입센 하우스’ 그리고 영화 ‘나의 딸(더 도터)’ 등의 작품을 통해 고전을 해체하고 재해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선보여왔다. 이번 작품의 무대 디자인은 건축 디자이너 사울 김(Saul Kim)이 맡았다. 심플하면서도 변칙적인 사울 김의 디자인 이미지에 매료되어 사이먼 스톤이 직접 그를 추천했다고 한다. 사울 김은 ‘벚꽃동산’의 이야기가 펼쳐질 ‘송도영’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특유의 기하학적인 디자인으로 담아 관객에게 놀라움을 선사한다.



일시 3월 13일-14일 목-금요일 오후 7:30,
15일 토요일 오후 3:0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금액 **VIP석** 11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5% 할인)
※ 13세 이상 관람가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오늘날 ‘벚꽃 동산’은 어디일까 나의 ‘벚꽃 동산’은 무엇이었을까

글 서종민 문화일보 기자

이 작품은 끝없이 다양한 질문과 대화가 뒤따르는 연극이다. 원작 희곡을 쓴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의 생일에 맞춰, 1904년 1월 17일 러시아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첫 공연이 있었다. 그날 무대 인사에도 올랐던 체호프는 6개월 후 결핵 증상의 악화로 사망했다. 체호프의 유작은 121년간 마르지 않는 애깃거리로 남아 있다.

이 이야기에는 낡은 것이 사라진 이후 어딘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돈다. 2025년 3월의 한국보다 더 적합한 무대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1편의 작품

사이먼 스톤 연출은 고전 원작을 한국의 오늘에 맞춰 빈틈없이 각색한 ‘벚꽃동산’을 내놓았다. 영국인이 아녔던가 의문이 들 만큼 대사 하나하나가 한국 실정에 맞아떨어진다. 그렇다고 해도 한계가 없었겠는가. 그 빈틈을 출연 배우들이 채웠다. 스톤 연출은 자신이 구상한 작품 그대로의 구현을 출연 배우에게 일일이 주문하지 않았다. 이와는 정반대다. 배우가 자신의 입말에 붙을 만큼 대사를 다듬고 때로는 추가하고 삭제하는 협업을 우선한다. 배역 이름에도 배우들의 의견이 반영돼 있다. 배우들이 각 배역 그 자체로 변한 무대가 그 결과물이다.

체호프 원작을 알고 있는 관객은 한국화가 이뤄진 대목

을 찾아내며 즐길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원작을 전혀 모르는 관객도 빠져들 수 있다. 복잡한 러시아식 이름과 지명 등을 한국인 귀에 익은 말로 바꿔놨기 때문만은 아니다. 배우들은 서로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듯, 상대방 의중을 정확히 가늠하는 수준으로 호흡을 맞췄다. 한 배우가 자신의 대사를 마치고 마침표를 찍으면, 다음 대사를 준비한 배우의 연기와 몇 초간 공백이 뜨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대본에 띄어쓰기가 없다는 느낌이 들 만큼의 찰나 타이밍으로 다음 대사가 따라붙는다. ‘대화 액션’이 박진감을 끌어올리고, 거기서 조성되는 분위기가 웃음을 끌어내기도 한다. 관객의 현실 일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우들의 대사가 서로 겹치는 상황도 치밀하게 설계돼 있다.

그의 작업을 ‘레지테아터’(Regie-Theater)라고도 한다. 원작 대사, 배경, 분위기는 물론 결말에 대해서도 변화의 여지를 두는 스타일이다. 연극 강국 독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독일어로 표기한다. 스톤 연출은 영화 ‘올드보이’를 보고 한국 문화에 푹 빠졌다고 한다. 급격한 민주화에 따른 정치적 역동, 견고하게 작동하는 사회적 위계 문화 등을 꾸준히 지켜본 스톤 연출은 ‘벚꽃 동산’이야말로 한국에서의 레지테아터 작품으로서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금 고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작품들도 그 당대에는 현대적인 작품이었다는 것이 그의 신조. 잘 된 각색은 고전을 이해하는 최고의 독법이라는 의미다.

10명의 배우

그렇기 때문에 현대극으로서 ‘벚꽃동산’의 완성은 배우들의 몫이다. 10개의 배역을 하나씩 맡은 배우 10명이 각자의 역할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 작품은 공연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배역의 무대는 오롯이 담당 배우가 맡고 있어야 하는 ‘원 캐스트’ 방식으로 연출됐다.

27년 만에 연극 무대에 돌아온 배우 전도연은 재벌가 자제 송도영이다. “돌아와서 행복해. 봐, 웃고 있잖아.” 막이 오르고 송도영의 첫 마디가 나오자마자 객석 시선은 무대에 착 달라붙는다. 몰락 직전의 상황에서도 앞뒤 없는 낙



관론을 펴고 있는 이 인물은 내심 다른 생각인지, 혹은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가늠하며 명배우 연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송도영의 오빠 송재영은 배우 손상규가 연기하는 인물이다. 송재영은 현실 감각을 상실한 채 옛날 책들의 이런저런 대목을 읊조린다. 그는 자신이 집안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는 자각은커녕 지금 이곳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혼란을 거듭하는 듯하다. 그리고 송도영의 첫째 딸 강현숙은 배우 최희서, 둘째 딸 강해나는 배우 이지혜가 맡는다. 이들 송 씨 집안의 가족 중 오직 강현숙이 현실 감각을 갖췄다. 목전의 몰락에서 벗어나고자 동분서주하는 강현숙과, 동생 강해나는 선명한 대조 구도를 형성하며 자매만의 이야깃거리를 보여준다. 강해나가 맹목 추종하는 변동림을 맡은 배우 남윤호의 몽상가 연기도 관전 포인트.

송 씨 집안에는 극의 복합적 구조를 떠받치는 주변 인물들이 스며들어 있다. 운전기사 신예빈은 멍청해 보이는데 달리 보면 그는 지금 자신의 진짜 면모를 숨겨둔 무서운 인물 같기도 하다. 배우 이세준이 그 서늘한 양면성을 보여준다. 배우 박유림이 맡은 가정부 정두나, 배우 이주원의 허세꾼 이주동까지. 이들 3명은 욕망의 삼각형을 짜고 극적 현실감에 깊이를 더한다.

마지막으로 사업가 황두식. 배우 박해수가 연기하는 이 인물은 과거 송 씨 집안의 운전기사였던 아버지를 벗어나, 어깨를 짚 펴고 이곳으로 돌아왔다. 체호프 원작의 “다들 내가 도끼를 들고 벚꽃 동산 찍는 모습을 보라!”고 하는 대사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 체호프의 4대 작품 중 유일한 계급 전복의 순간이 이 대사에서 명징해질 뿐 아니라, 극 자체의 정점을 찍는다. 황두식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기대해도 좋다.

1개의 무대

이 작품의 무대 디자이너 사울 김은 건축학을 전공했고 본업도 건축이다. 스톤 연출은 자신과 안면도 없는 사울 김에게 대뜸 SNS 메시지를 보내 무대 디자인을 의뢰했다고 한다. 1개의 건축물, 즉 무대가 어떤 조명을 받고, 그 안이나 밖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공간이 된다는 데서 매력을 느꼈다. 흰 단색의 세트는 그 지점을 극대화하는 구상이었다.

10명의 인물이 대사, 서사, 욕망, 시선, 걸음, 몸짓을 지니고 1개의 건축물 안팎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렇게 1개의 또 다른 작품이 됐다. 지붕 전체를 계단 형태로 마감한 사울 김의 디자인이 만들어낸 그 ‘욕망의 동선’이 짙은 기억을 남기는 작품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8회 정기연주회 (ENT)SPANNUNG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긴장(Spannung)'과 '이완(Entspannung)'의 대조를 통한 음악적 흥취를 선사하는 '(Ent)Spannung'로 관객과 만난다.

3월 6일과 7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제618회 정기연주회에서는 홍석원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최송하, 유다윤의 협연으로 현대음악 장르에서도 긴장도가 매우 높은 시닛케의 '합주 협주곡 제1번'과 베토벤 작품 중에서도 가장 평온한 교향곡 제6번 '전원'을 들려준다. 특히 두 협연자의 비르투오소적인 연주로 시닛케의 극도의 긴장감을 만날 수 있으며, 서로 대비되는 작품간의 묘미도 즐길 수 있다.

첫 곡인 '합주 협주곡 제1번'은 광범위한 장르와 스타일로 유명한 러시아 작곡가 시닛케의 대표곡으로, 두 대의 바이올린 연주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시닛케는 바로크, 고전, 낭만 등 과거 시대의 음악에서 차용한 요소나 양식을 현대적 기법과 융합하는 방식으로 독창적인 작품들을 작곡했는데, '합주 협주곡 제1번'은 그런 그의 특징이 잘 드러난 대표작이다.

영국 '더 타임즈'에서 "매혹적: 열정, 상상력, 대담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한 한국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최송하는 예후디 메뉴힌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시니어 최연소 2등상과 청중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후 2023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CMIM), 2021 원저 페스티벌 국제 현악 콩쿠르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최근 2024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 다른 협연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유다윤은 2023년 롱-티보 국제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준우승하고 2024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에서 수상했다. 2022년 바덴-바덴 칼 플레시 아카데미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이 뽑는 '최고의 솔로리스트 상'인 슈테브 브뤼겐 상을 수상한 유다윤은 협업이 중요한 실내악에도 열정을 보이며 2023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모차르트 콩쿠르 현악 사중주 부문에서 아레테 콰르텟의 객원 단원으로 참가하여 1위와 함께 모차르트 작품 최고 해석상을 수상했다. 최송하와 유다윤은 현재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 음악대학에 재학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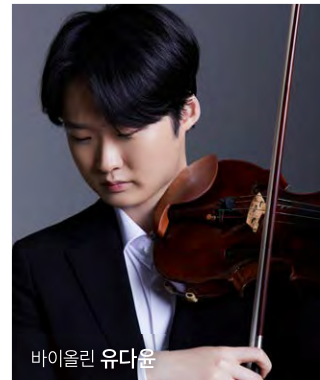
이번 무대의 또 다른 연주곡인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은 베토벤이 남긴 9개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서정적인 교향곡으로, 자연에서 느낀 감정을 음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베토벤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고전 교향곡의 4악장 형식에서 벗어난 5악장 구성으로, '전원'이라는 제목뿐 아니라 각 악장의 표제 역시 베토벤이 직접 붙였다.



지휘 홍석원



바이올린 최송하



바이올린 유다윤



3월 6일-7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 제195회 정기연주회 벤자민 브리튼 봄의 교향곡



지휘 이기선



소프라노 최정원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김효중



베이스 김대영

2025년 새봄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한국 초연으로 벤자민 브리튼의 '봄의 교향곡'을 무대에 올린다.

특히 이 작품은 벤자민 브리튼을 대표하는 교향곡이자 20세기 전반부 가장 독창적인 합창과 관현악 작품으로, 대지와 생명의 재탄생을 노래한 '봄의 교향곡'으로 새 봄의 시작을 알린다. 우리에게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으로 유명한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은 경쾌하면서도 강렬하고 생동감 넘치는 색채감 구사로 봄이 시작되며 깨어나는 모든 만물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공연에 앞서 첫 곡으로는 19세기 종교음악의 걸작이라 꼽히는 부르크너의 혼성 4부 합창 '테 데움'을 들려준다. 이기선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소프라노 최정원,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김효중, 베이스 김대영이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소프라노 최정원은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과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최고연주자과정을 수석 졸업하고 그동안 오페라 주역 및 전문연주자로 다양한 무대

에 서왔다. 현재는 한세대학교 성악과 초빙교수로 있으며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경희대학교 학장으로 있는 메조소프라노 이아경은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도이, 비오티 고등음악원, 파르마 오르페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 제34회 벨리니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우승하는 등 알카모, 마리오 델 모나코, 발세지아 무지카, 벨루티, 스피로스 아르지리스 등 6개의 국제 콩쿠르에서 단독 우승한 바 있다. 그동안 조수미, 바렌보임, 정명훈, 압판 츠베덴, 시송 등과 협업했으며, 수십 편의 오페라 주역으로 출연하여 2011년에는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여자주역상을 수상했다.

테너 김효중은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 졸업하고 도독,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뤼벡 국립 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브레멘 극장 전속 성악가로 활동하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베이스 김대영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도독, 뉘른베르크 음악대학 Diplom과 Meisterklasse 과정을 최초 만점 졸업하고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극장, 바이마르 국립극장 전속 솔리스트를 역임하며 유럽과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 중이다.

3월 13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잠비나이 콘서트 with 미역수염

온몸으로 느끼는 압도적인 감흥으로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던 뮤지션 잠비나이가 4년 만에 다시 부산을 찾는다.

잠비나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동기인 이일우(기타, 피리, 태평소, 보컬), 김보미(해금, 보컬), 심은용(거문고)과 최재혁(드럼), 유병구(베이스) 등 5인으로 구성된 포스트 록 밴드로, 해금·피리·거문고·생황 등의 국악기와 기타·베이스·드럼 등의 악기를 혼용하여 한국 전통음악과 프리 재즈, 포스트 록, 헤비메탈 등의 현대 대중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오고 있다. 지난 2009년 결성된 후 호주 PIAF와 같은 종합예술축제에서부터 미국 코첼라, 영국 글래스턴베리, 프랑스 헬페스트 등 글로벌 페스티벌,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무대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 다양한 무대를 누벼온 잠비나이는 특별한 연출 없이도 관객들을 사로잡는 라이브를 주무기로 전 세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정규 1집 앨범으로 2013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크로스 오버 음반’을 수상한데 이어 3집 앨범이 ‘최우수 록 앨범’과 ‘최우수 록 노래’를, 2022년 발표한 EP 역시 ‘최우수 록 노래’를 수상하며 자신들의 음악 세계를 꾸준히 증명해내고 있다. 팀명인 ‘잠비나이’는 첫 공연을 앞두고 급하게 이름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금주자 김보미가 우연히 떠올린 4글자 낱말로, 아무런 뜻이 없다고 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소멸의 시간’, ‘검은빛은 붉은빛으로’, ‘온다’ 등의 주요 곡을 잠비나이 특유의 격렬하고 폭발적인 라이브 무대로 들려준다.



잠비나이



미역수염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록 밴드 미역수염이 함께 한다. 미역수염은 부산의 언더그라운드 씬을 기반으로 탄생하여 지금 이 순간 가장 주목받는 한국의 록 밴드 중 하나로, 2023년 제20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메탈&하드코어 음반 부문, 2025년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메탈&하드코어 음반 부문에 연이어 노미네이트된 내실 있는 아티스트이다. 최지훈(기타, 보컬), 정주이(베이스, 보컬)가 주축이 되어 2014년 결성된 후 2016년 ‘The Whistle’ EP 발매 후 공백기를 거쳐 2022년 첫 정규앨범 ‘Bombora’ 발매와 함께 이완기(드럼), 반재현(기타)을 정식 멤버로 영입하면서 지금의 미역수염으로 탄생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HEX’, ‘바람’, ‘Hello, death’, ‘The whistle song’ 등 대표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3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4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키즈송 위드 클래식 - 동요편

어린이들과 클래식의 거리를 좁혀 둘도 없는 친구로 만들어 주는 특별한 클래식 공연 시리즈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 관객과 만난다.

이번 무대는 감성의 키가 한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무대로, 어린이들이 클

래식 공연 감상을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추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로 공연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스크린을 활용한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앙상블 연주가 어우러지면서 어린이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예술적인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그 첫 무대로 3월 15일에는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동요를 클래식 앙상블 연주와 노래로 전하는 '키즈송 위드 클래식-동요편'이 펼쳐진다. 동요 '네잎클로버', '싱글벙글', '숲속을 걸어요'부터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리아 '인형의 노래', 우리에게서 동요 '반짝반짝 작은별'로 잘 알려진 모차르트 '작은 별' 변주곡(성악 ver.)과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 '아름다운 베르네', '숲의 요들' 등 요들송 메들리와 멕시코의 '시엘린토 린도', '라쿠카라차' 등 세계 동요 메들리, 그리고 다양한 버전의 'Happy Birthday To You'까지 인기 동요부터 클래식 및 세계 각국의 민속음악을 테마로 한 동요까지 어린이들이 함께 노래하고 감상하며 클래식 공연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해설&바이올린 박소연



엘 콰르텟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쾌하고 재미있는 해설과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소연이 해설을 맡아 어린이들의 예술적 감성을 일깨워준다. 클래식 앙상블 '엘 콰르텟'의 리더로 신진음악회의 등용문인 조선일보 신인음악회를 통해 데뷔한 박소연은 'KBS 클래식 오디션', 'KBS 문화 책갈피', 'KBS 찾아가는 음악회', '예당 아트 티비' 등 국내 주요 클래식 방송에 출연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클래식 교육과 감상을 위한 다양한 테마의 '키즈 클래식'을 기획, 수년간 진행하며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오고 있다. 연주를 맡은 '엘 콰르텟(L quartet)'은 풍부한 감정 표현과 섬세한 연주로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현악사중주단으로 무용, 연극, 미술 등 다채로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실내악 음악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두 번째 무대인 '클래식 댄스! 댄스!'는 어린이날을 앞둔 5월 3일 펼쳐진다. 이날 무대에서는 우아한 궁전 춤곡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나라 민속 춤곡을 발레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3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아메리카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홍석원, 부지휘자 백승현의 깊이 있는 해설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진행되는 고품격 무대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두 번째 무대가 3월 25일과 26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한낮의 명품 공연으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재)부산문화회관 마티네 콘서트의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기존 한낮의 공연으로 호평 받았던 마티네 공연 외에도 직장인들의 즐거운 퇴근길이 되어줄 저녁 공연으로 이틀간 나뉘어 진행된다. 1월 ‘헝가리’에 이어 3월에는 부지휘자 백승현의 지휘, 해설과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의 협연으로 아메리카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아메리카의 음악은 초기 유럽 이민자들에 의해 전해졌으며, 초기의 많은 작곡가들은 19세기 후반까지 유럽의 양식을 고수했다. 20세기 초 들어서면서부터 재즈와 블루스, 아메리카 원주민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작품에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의 래그타임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스콧 조플린과 20세기 미국의 중요한 현대음악 작곡가인 코플랜드의 곡으로 아메리카 음악을 살펴본다. 첫 곡인 스콧 조플린의 ‘The Entertainer’는 영화 ‘스팅’의 주제가로, 경쾌하면서도 리드미컬한 멜로디와 독특한 리듬으로 작곡가 이름은 몰라도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을 없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곡이다. 이어서는 전설적인 클라리네티스트이자 ‘스윙의 제왕’이라 불리는 베니 굿맨이 초연한 ‘클라리넷 협주곡’과 발레를 위한 실내악 편성으로 작곡됐으나 오케스트라곡으로 편곡되어 더욱 유명해진 ‘애플라치아의 봄(Appalachian Spring)’ 모음곡 등 아론 코플랜드의 두 작품을 들려준다.

코플랜드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협연할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195:1의 경쟁률을 뚫고 블라인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어 클라리넷 종신수석주자로 활동했다. 또 스위스의 빈터투어 무직콜레기움 오케스트라와 바젤심포니 오케스트라 종신수석을 역임하는 등 유럽과 미국을 누비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의 창립멤버로 클라리넷 수석을 맡고 있다. 조인혁은 덴마크 칼 닐센 국제 콩쿠르 3위 입상을 비롯하여 앙리 토마지 국제 목관 오중주 콩쿠르 1위, 파리 드뷔시 콩쿠르 특별상을 통해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으며 국내에서는 해외파견 음협콩쿠르에서 목관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현재는 솔로 및 실내악 연주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한양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지휘 백승현



클라리넷 조인혁



3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26일 수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 3개 공연 30%, 2개 공연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9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 I 부산, 바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올해부터 새롭게 마련하는 창작 위촉곡 시리즈 첫 번째 무대 '부산, 바다'가 3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창단연주회부터 매회 정기연주회 때마다 창작곡을 위촉, 연주하고 음반과 악보집을 내는 등 일찍부터 창작곡 개발에 힘을 쏟아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창작 위촉곡 시리즈를 통한 새로운 창작곡 발굴로 창작 국악의 저변 확대와 국악 발전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그 첫 무대인 '부산, 바다'에서는 '부산'을 주제로 젊은 여성작곡가 4명이 작곡한 창작 국악관현악곡을 초연한다. 이번 무대는 이동훈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월간 '객석' 편집장이자 국악방송 'FM국악당' 진행자로 있는 송현민의 사회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무대에 앞서 첫 곡으로는 2004년 위촉곡이자 부산 바다의 역동성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으로 표현한 정동희 곡 '꿈의 바다'를 들려준다.

첫 번째 위촉곡의 주인공은 제2회 지영희 국악 창작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현재 청주시립국악단 상임단원으로 있는 작곡가 이지영으로, 동해안 별신굿 '삼오동' 장단에 나오는 무가(巫歌) 선율을 주제로 한 국악관현악곡 '귀향(歸鄉)'을 선보인다. 이어서는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단원인 박선영의 해금협주곡 '생각이 향하는 대로, 음악이 이끄는 대로'를 해금 수석 윤해승의 연주로 들려준다. 윤해승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이자 해금아쟁연주단 해아연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31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작곡 부문 금상을 수상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강사로 있는 이고운의 '대미'는 동해안 굿 장단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동해안 장구 협주곡으로, 타악 부수석 박재현의 신명넘치는 장단으로 만날 수 있다. '대미'란 장구를 의미하는 은어.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박재현은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이수자이자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전수자, (사)일통고법보존회 경남지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작곡상 대상, KBS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한 손다혜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수심(水深)을 넘어'는 마치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듯한 '바다'를 상상하며 작곡한 곡으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수심(水深)을 넘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휘 이동훈



사회 송현민



작곡 이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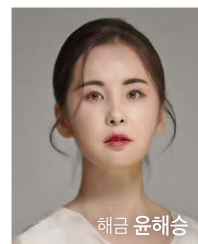
작곡 박선영



작곡 이고운



작곡 손다혜



해금 윤해승



타악 박재현



3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극단 제79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오롯이 빛나는 초월자

부산시립극단이 소극장 연극을 지향하며 기획한 ‘스타프로젝트’로 2025년 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부산시립극단의 ‘스타프로젝트’는 그동안 극단의 레퍼토리를 다각화하기 위한 시도로, 단원이 주도하는 배우와 연기 중심의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올해는 부산 연극계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킨 신진 작가 두 명의 작품들로 꾸며진다.

우선 뮤지컬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로 화제를 모았던 차승호 극작가의 신작 ‘오롯이 빛나는’은 3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무대에 오른다. ‘오롯이 빛나는’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더 이상 공연이 힘들게 된 각설이계 명품 디올(Dior)이와 그녀의 아들이자 틱장애로 절체절명의 기회를 날려버린 고교 3학년 야구선수 우동기가 인생 첫 여행길인 장터 여행을 통해 성장하고 화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작품의 연출까지 맡은 차승호는 결핍을 주제로 하지만 그것을 장애나 한계가 아닌 개성과 삶의 리듬으로 바라보며, 결국 ‘오롯이 빛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라 이야기한다. 현재 ‘이야기 산업 샘플’ 대표로 있는 차승호는 뮤지컬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 작, 연출 외에도 2021 부산오페라연합회 창작 오페라 ‘대향 이중섭’, 2022 부산문화재단 청년 연출가 제작 지원사업 뮤지컬 ‘바라던; 바다’, 2023 카카오 웹툰 ‘Delete’, 2024 EATI in Busan 한국팀 ‘Distopia’ 작가로 활동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자 역의 부수석단원 이현주, 단원 채민수 외에도 이혁우, 조정우, 염지선, 이수현, 윤영식 등 부산시립극단 단원이 출연하며 트로트 가수 전자연, 각설이 역 이설, 리틀치어단 슈팅스타가 특별출연한다.

4월 4일과 5일 이틀간은 또다른 작가 김민우의 신작 ‘초월자’가 관객과 만난다. 김민우 본인의 연출로 무대에 오르는 ‘초월자’는 첩보 심리 드라마로, ‘초월자’라는 코드네임과 함께 주인공이 내면의 고통과 실패를 딛고 첩보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번 작품에서 김민우는 현실과 가상,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을 초월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의지를 탐구한다. 극단 팻브릿지 상임연출가로 있는 김민우는 2010년 ‘못 생겨서 죄송합니다’를 비롯하여 ‘생존의 법칙’, ‘우리가 사랑할 때’, ‘미치치 않고서야’ 등 로맨스부터 무거운 주제의 작품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여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극단 수석단원 황창기를 비롯하여 단원 오희경, 김은옥, 서보기, 이태성, 박규한, 김성열, 전용균, 양지웅이 출연한다.



작, 연출 차승호



작, 연출 김민우



3월 28일(금)-29일(토),
4월 4일(금)-5일(토)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
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Friendly Concert

올해로 창단 52주년을 맞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우정과 열정이 넘치는 'Friendly Concert'로 2025년 첫 무대를 연다.

'Friendly Concert'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2003년부터 전국의 소년소녀합창단과 교류하며 합창을 통한 우정을 쌓아오고 있는 무대로, 팬데믹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교류무대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이어 올해는 정관소년소녀합창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우정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첫 무대의 주인공은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정관소년소녀합창단으로, 지휘자 차윤희의 지휘로 '꽃잎 편지'(손정아 곡), '새야 새야 파랑새야'(최가희 편곡), 뉴질랜드 민요 'Pokare Kare Ana'(이현철 편곡), 성가곡 'African Alleluia'(Jay Althouse 곡)을 들려준다. 기장군에 거주하는 10세~15세 학생들로 구성된 정관소년소녀합창단은 2014년 창단 후 정기연주회를 외에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베트남, 대만, 중국, 일본 등 해외연주회를 통해 지역의 문화사절단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어서 권기원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비발디의 미사곡 '글로리아' 중 'Domine fili unigenite'를 시작으로 작곡가 문은정의 창작동요 '아낌없이 꿈을 꾸는 별', '신비한 노을바다', 헝가리 작곡가 레벤테 쾨죄시의 'Laudate Dominum', 다양한 화음이 돋보이는 스위스 노래 'Wah bah dah bah doo bee'(Ivo Antognini 곡)로 관객과 만난다. 1976년 창단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창단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전통과 실력을 겸비한 합창단으로, 매년 창작 합창 뮤지컬, 정통 클래식, 어린이를 위한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광주광역시 문화사절단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수석지휘자 천경필이 이끄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구원의 희생(O salutaris hostia)'을 시작으로 'Pong Pong Piyangaw'(M. T. Vizconde 곡, Roldan 편곡), 'Dance!'(R. T. Gibson 곡), '노래가 만든 세상'(윤학준 곡), '평화의 춤'(손민혜 곡)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정관소년소녀합창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하는 연합무대로, 이현철 곡 '이 땅에 평화가 넘치길'을 통해 합창으로 하나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지휘 천경필(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 차윤희(정관소년소녀합창단)



지휘 권기원(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3월 29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3천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6회 정기연주회

메멘토

그동안 국내외 정상급 협연자를 초청, 수준높은 무대를 선보여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평단의 호평을 자아내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박종해와 함께 2025년 첫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무대는 러시아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지휘자로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의 마지막 계승자라 평가받는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을 통해 그동안 백승현 수석지휘자와 함께 단단한 기량을 다지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진일보한 연주를 만날 수 있다.

첫 곡인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작품 43’은 라흐마니노프의 정교한 짜임새를 보여주는 그의 마지막 협주곡으로, 변주곡의 형태로 되어있는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작품이다. 낭만파 시대의 수많은 작곡가들을 매혹시켰던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독주곡 ‘24개의 카프리치오 작품 1’의 마지막 곡인 24번 a단조의 주제 멜로디를 사용하여 작곡된 곡으로, 피아노의 화려한 기교와 관현악 파트의 현란하고도 풍부한 색채가 서로 잘 어우러져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피아노 협연을 맡은 박종해는 ‘강한 내면과 진심 어린 감성을 모두 표현해내는 최고 수준의 연주자’라는 극찬과 함께 2018년 제자 안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담하고 자유로운 표현으로 각광받는 박종해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KBS교향악단, 국립심포니, 경기필하모닉, 부천필하모닉, 대전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하며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평창대관령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등 유서 깊은 무대에 초청받아 연주했다.

2000년 예일 모스 리사이틀홀에서 그레이터 뉴헤이븐 콘서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미국 무대에 데뷔한 후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나고야 필하모닉, 홍콩 체임버 오케스트라, 로열 알로니 체임버 오케스트라, RTE 국립 심포니 등과 협연은 물론 세계 유수 마에스트로와 한 무대에 올라 국제 무대에서 연주력을 인정받았다. 2019년에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를 역임하며 독보적인 상상력과 개성 있는 음악을 선보였으며, 꾸준히 실내악 무대에 오르며 탁월한 음악성을 보여주고 있다.

차이콥스키 이래 가장 위대한 교향곡이라 불리는 ‘교향곡 제2번’은 라흐마니노프가 ‘교향곡 제1번’의 실패와 길고 긴 슬럼프를 이겨내고 10년만에 작곡한 곡으로, 그에게 두 번째 글린카 상을 수상하게 한 역작이다.



지휘 백승현



피아노 박종해



4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Sound of Busan :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교향곡 제1번

(재)부산문화회관이 지역 오케스트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획한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두 번째 무대가 4월 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클래식 저변 확대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온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라들이 부산 클래식의 저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무대로, 인간의 내면과 그 깊이를 탐구한 브람스의 교향곡 전곡 연주를 만날 수 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지난 1993년 창단, 30년의 세월을 훌쩍 넘긴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로, ‘위대한 교향곡’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브람스 ‘교향곡 제1번’을 연주한다. ‘교향곡 제1번’은 말 그대로 브람스의 첫 교향곡이지만 완성까지 20년 이상 걸린, 그의 나이 43세에 완성된 역작으로, 오랜 시간 숙성된 만큼 구조가 견고하고 브람스 고유의 중후한 감정을 담고 있다.

오충근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21세기 문화환경 요구에 부합하는 교향악단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를 통해 클래식 정통 오케스트라로 호평받고 있다.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부산음악인 시리즈, 오페라 전막공연, 조수미 콘서트, 호세 카레라스 내한공연, 부산바다축제, 한·일 빅콘서트, 이태석음악회, 그리고 기업메세나음악회 등 수많은 연주를 통해 문화상품화의 가능성과 함께 음악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휘자 지중배의 지휘로 부산 출신의 차세대 작곡가 김종완의 창작곡 ‘완성의 여정’ 초연에 이어 브람스 생애 단 하나뿐인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77’을 독일 하노버 요아힘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은 서울대학교 김다미 교수의 협연으로 들려주며, 브람스 ‘교향곡 제1번’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지휘자 지중배는 서울대학교 및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2012년 독일음악협회와 라이프치히 오페라극장이 공동 주최한 독일 오페레타상 지휘자상을 동양인 최초로 수상했다. 거장 카라얀이 수석지휘자로 있던 독일 울름 시립극장 및 시립교향악단, 트리어 시립극장 및 시립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 및 부 음악총감독으로 활동했으며, 독일음악협회의 ‘미래의 거장’ 1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혹적 선율과 탁월한 해석으로 명성을 얻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는 독일 하노버 요아힘 국제콩쿠르 외에도 출전한 모든 콩쿠르에서 파이널 진출 및 입상한 놀라운 실력과 아티스트로, 2018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상을 수상했다.



지휘 지중배



바이올린 김다미



4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랑데부

지난해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창작 초연극 ‘랑데부’가 부산을 찾는다.

특히 이번 무대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온 배우 박성웅이 24년만에 연극무대에 복귀하여 화제가 된 작품으로, 이번 부산 무대에서는 개성있는 연기로 사랑받는 배우 이수경과 함께 특유의 깊이 있는 감정 연기로 새로운 연기 양상미를 선보인다.

‘랑데부(rendez-vous)’는 특정한 시각과 장소를 정해 만나는 남녀간의 만남, 혹은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 우주공간에서 만나는 중의적인 뜻을 가진 프랑스어이다. 제목처럼 연극 ‘랑데부’는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우주를 떠돌듯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남녀가 우연인듯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아픈 과거를 풀어가며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로, 지난해 서울 초연무대에서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입증했다. 특히 ‘랑데부’는 초연무대에서 출연은 물론 제작에도 참여했던 배우 문정희의 경험담이 바탕이 된 작품으로, 틀을 깨는 다양한 시도를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김정환 연출가가 직접 작품을 쓰고 연출을 맡았다. 오직 두 배우의 열연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멜로 2인극은 인물들의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며 관객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한다.

로켓 개발자 태섭은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어김 없이 영춘관에서 짜장면을 먹는다. 심각한 수준의 강박증을 갖고 있는 그는 저녁 메뉴에 있어서도 변수를 용납 못하는 사람이다. 몇 달 동안 출장을 다녀왔더니 단골 중국집의 음식



맛이 변해 마뜩잖다. 엄마의 장례식 이후 도망치듯 영춘관을 떠난 지희는 아버지가 타계하자 다시 영춘관으로 돌아왔다. 유년시절 자신을 가장 괴롭게 했던 장소지만, 자신이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단골손님 태섭에게 아버지의 짜장면 레시피를 전수 받고자 한다.

연극 ‘랑데부’는 강박장애(OCD)를 겪는 남자 주인공과 홀로 삶을 이겨내야 하는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한다. 특히 패션쇼의 런웨이 무대를 연상시키는 직사각형의 긴 무대 위에서 배우들은 대사뿐 아니라 온몸으로 대화하는 듯한 현대무용과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로 극 전체를 풍성하게 채워낸다.

믿고 보는 배우들의 열연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연극 ‘랑데부’는 이번 부산 공연에서도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예정이다.

4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일 시 | 3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오픈 리허설을 통해 제 618회 정기연주회를 미리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미완성음악회.

미완성음악회는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연주를 앞두고 지휘자와 단원들이 호흡을 하나로 맞추어 가는 과정을 직접 듣고 볼 수 있어 실제 무대와는 차별화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홍석원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제 618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인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의 3악장부터 5악장까지의 리허설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국악인형극 **얼씨구 왕국의 삼총사**

일 시 | 3월 5일(수)-6월 1일(일) 평일 오전 10:30(단체관람), 주말 오전 11:00 (월-화요일 공연 없음) **사랑채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얼씨구 삼총사와 함께 하는 좌충우돌 국악인형극 '얼씨구 왕국의 삼총사'. 우리의 전통악기를 캐릭터화한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음악과 전통문화를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무대로, 음악대륙 가이아의 신명나는 국악연주와 함께 펼쳐진다.

이번 무대를 제작한 콘텐츠 플랫폼 가이아는 예전의 대륙이 하나였듯 세상 모든 문화는 하나이고 그 속의 다양한 문화들을 담아내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국악의 새로운 면모와 다양성을 대중에게 전달해오고 있다.

• 극본/김지은 • 음악감독/손한별

뮤지컬 **장수탕 신녀님**

일 시 | 3월 8일-9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대극장**
입 장 료 | 6만6천원·4만4천원(예매시 40% 할인)
문 의 | (주)썬브릿지(1533-7446)



동네 낡은 목욕탕에서 만나는 신비로운 판타지의 세계 '장수탕 신녀님'.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동화작가 백희나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엄마를 따라 목욕탕에 간 주인공 '덕지'가 할머니 신녀님을 만나 함께 놀며 친구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덕지가 신녀님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신나는 냉탕놀이는 영상, 조명, 특수효과에 힘입어 관객들을 판타지 세상 속으로 이끌고, 아름다운 음악은 원작이 가진 탄탄한 스토리와 따뜻한 감동을 배가시킨다.

안수빈 첼로 독주회

일 시 | 3월 8일 토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안수빈 010-6690-7903



2025년 제35회 음악저널 신인음악상을 수상한 첼리스트 안수빈 독주회. 부산예중고를 졸업한 후 도독, 쾰른 국립음대를 거쳐 데트몰트 국립음대에

서 만점 수석으로 졸업한 안수빈은 이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석사 오케스트라 과정을 수료했다.

안수빈은 2022/2024 드레스덴 필하모니커, 2019/2020 도르트문트 필하모니커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2024년 7월 귀국 후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성남시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 국제음악제오케스트라, 뉴월드 오케스트라, 필하모니 코리아, 부산신포니에타 등에서 객원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트리오 헤르만의 첼리스트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알렉세이 레베데프 피아노
리사이틀 Beethoven & Chopin

일 시 | 3월 9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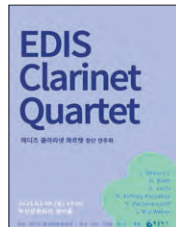
'카리스마 넘치는 건반 위의 대가'로 정평이 나있는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레베데프 리사이틀. 알렉세이 레베데프는 세계적 권위의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 및 현대국 특별상, 비오티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마리아 카날스 국제 음악 콩쿠르 2위 및 2개의 특별상, 호세 이투르비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 등 상위 입상하며 그의 세대에서 가장 각광받는 예술인으로 자리매김했다. 2012년부터 경성대학교 교수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알렉세이 레베데프는 이번 무대에서 쇼팽과 베토벤의 음악으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쇼팽/4개의 마주르카 작품 24
쇼팽/녹턴 내림나장조 작품 27 제2번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32번 다단조 작품 111 등

에디즈 클라리넷 콰르텟
창단 연주회

일 시 | 3월 9일 일요일 오후 7:00 **챔버홀**
문 의 | 에디즈 클라리넷 콰르텟 010-2226-3611



클라리넷리스트 백양지와 최현수, 조준호, 유성수로 결성된 에디즈 클라리넷 콰르텟의 창단연주회.

백양지는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악대학 전문연주자

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현재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현대음악앙상블 Project21And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경성대학교에 재학중인 최현수, 조준호는 각각 부산음악협회 콩쿠르, 글로벌 콩쿠르 2등과 부산음악협회 콩쿠르, 부산관악협회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유성수는 경성대학교 음악학부를 졸업하고 동의대학교 대학원(지휘)을 수료한 후 현재 문화유목집단 동행 멤버, 꿈의오케스트라 부산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게스트/이주은(클라리넷)

제9회 트라우마 앙상블 연주회

일 시 | 3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오민성 010-4725-7714



연주하지 않을 때의 편안함보다 연주할 때의 불편함이 더 좋은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구성된 트라우마 앙상블의 무대.

지난 2012년 첫 연주를 시작으로 각자 바쁜 본업과 일상 가운데서도 클래식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꿈(트라우마)을 펼치기 위해 무대에 서온 트라우마는 이번 무대에서 5명의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모차르트 '현악 5중주 제4번'에 이어 합주지도를 맡고 있는 첼리스트 조명환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플로렌스의 추억 작품 70'을 들려준다.

- 합주지도/조명환
- 바이올린/이혜진, 하지경
- 비올라/황희경, 김서윤
- 첼로/오민성, 조명환

팬텀 스타 워즈 부산청년 봄을 깨우다

일 시 | 3월 16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5만원, S석 10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 의 | (사)부산예술후원회 010-3940-3060, 010-2530-7568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사)부산예술후원회가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부산 출신 청년 성악가들의 무대로 꾸미는 특별한 무대 '팬텀 스타 워즈-부산청년 봄을 깨우다'.

지역 출신 성악가들을 후원하고 양성하는 뜻깊은 무대로, '팬텀싱어3' 출신의 '레테아모르'의 리더 길병민을 비롯하여 '팬텀싱어4'의 '크레즐' 멤버 이승민, 이탈리아를 접수한 박종수, 팬텀을 지나 트로트 재패에 나선 신명근 등 실력있는 청년 성악가들의 멋진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클래식 성악부터 뮤지컬, 대중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올라운더 성악가 4명이 펼치는 무대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제1249회 MBC목요음악회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봄의 향연

일 시 | 3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1층 1만5천원, 2층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60-1494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로 마련되는 제1249회 MBC목요음악회.

2007년 창단된 민간 오케스트라로 참신하고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청중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고전음악부터 낭만음악까지 깊이 있는 해석과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요한 스트라우스/‘봄의 소리’ 왈츠
모차르트/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제10번
드보르작/교향곡 제8번 사단조
• 지휘/손명균 • 악장/김희정
• 피아노/박성열, 김성훈

박한나 플루트 리사이틀

일 시 | 3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당일 현장 구매)
문 의 | 박한나 010-9878-7939



맑고 깨끗한 음색과 풍부한 음악성을 지닌 플루티스트 박한나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과정을 조기졸업하고 도독, 로스톡 국립음대에서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 베를린 한스아이스러 국립음악대학에서 실내악 석사과정을 최고점수로 마치며 전문연주자로서 탄탄한 기반을 다진 박한나는 북독일 로스톡 필하모니 부수석, 메를렌부르크 슈타츠포카펠레 슈베린, 노이브란덴부르크 필하모니, 대구시립교향악단 객원수석, 2022년~2024년 부산오페라하우스 시즌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앙상블 9°odo 멤버로 활동하며 실내악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피아노/박지은
- 오보에/이현수
- 바순/김영두
- 클라리넷/차호철
- 호른/조성현

가족뮤지컬 반쪽이전

일 시 | 3월 2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중극장**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24개월 이상 관람, 3월 14일까지 예매시 40% 할인)
문 의 | 협동조합 손에손에 010-8451-6149



올해로 초연 36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최장수 가족뮤지컬 '반쪽이전'. 전래동화 '반쪽이'를 모티브로, 장애와 역경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반쪽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반쪽이전'은 1989년 국립극장에서 초연된 후 세대를 넘어 3대가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진정한 가족공연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전통 연희와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독창적인 연출과 화려한 무대의상, 한국적인 미장센으로 가득한 무대가 관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으며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박시은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3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박시은 010-5015-0825



인제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독, 바이로이트 교회음악대학 피아노 교육학,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데트몰트 국립음대 가곡반주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박시은 귀국 독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음악의 구약성서로 비유되는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II' 중 '프렐류드와 푸가'를 비롯하여 하이든, 슈베르트, 드뷔시, 하인츠 홀리거의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흐/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II 중 '프렐류드와 푸가' BWV 872
하이든/클라비어 소나타 바장조 Hob.XVI:23
슈베르트/클라비어 소나타 가장조 D.959
드뷔시/아르페지오를 위한 연습곡 제11번
하인츠 홀리거/피아노를 위한 3개의 야상곡 '엘리스'

지브리 OST 콘서트: 디 오케스트라

일 시 | 3월 23일 일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11만원,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두남재엔터테인먼트(주) 02-6292-9370



남녀노소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고 있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OST를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로 만날 수 있는 '지브리 OST 콘서트: 디 오케스트라'.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 대부분에 참여하여 국내외 두터운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거장 히사이시 조가 작곡한 영화음악 OST와 미야자키 히야오 감독이 10년만에 발표한 장편 애니메이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OST까지 감동적인 선율을 선사한다.

- 지휘/최영선 • 바이올린/김희진
- 피아노/정다슬 • 색소폰/조세형
- 연주/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아르떼 예술단 협동조합 연합 연주회

일 시 | 3월 23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 의 | 아르떼예술단협동조합 070-8095-9426



더뉴 앙상블, 아르떼 유스 오케스트라, 골든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아르떼 예술단 협동조합의 연합무대.

원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김광현이 지휘하고 제15회 오사카 국제콩쿠르 Espoir prize,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4회 수상한 소프라노 김소율, 이탈리아 살비노 국제콩쿠르 심사위원 만장일치 1위 수상한 테너 이태흠이 출연, 멋진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음악감독으로 있는 신상준은 현재 KNN방송교향악단 객원악장이자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 지휘/김광현 • 음악감독/신상준
- 소프라노/김소율 • 테너/이태흠

바리톤 최성규 60주년 기념독창회

일 시 | 3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부산시립합창단 부수석 단원으로 있는 바리톤 최성규의 데뷔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

최성규는 경성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도

이, C.S.M Accademia Diploma, Arena Accademia 연주자과정을 수학과 동등안 독창회와 듀오 콘서트, 해외 초청연주회를 비롯해 오페라 주역 및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다수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가 오랜 세월 무대에서 불렀던 곡 중에 가장 사랑하고 애정하는 곡들로 무대를 꾸민다.

- 피아노/이승운

피아니스트 홍선화 독주회

일 시 | 3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크레센트 기획 242-8479



우아하고 단아하면서 정결한 멜로디를 창조하는 특별한 연주 기술력의 소유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홍선화 독주회.

홍선화는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대학교 학사, 뉴욕시립대 브루클린 대학 석사, 뉴욕주립대 퍼체이스 컬리지 전문연주자과정을 취득하고 뉴욕 카네기홀, 맨하탄 스타 인웨이홀, 틸레스 센터 등 뉴욕을 기점으로 오랜 기간 세계무대에서 활동해왔다.

현재 고신대학교 외래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홍선화는 이번 무대에서 모차르트와 베토벤 소나타, 슈베르트 즉흥곡으로 구성된 마스터피스들의 레퍼토리로 전문연주자를 넘어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 해설/김윤선(음악평론가)

지휘자 서희태의 톡 클래식

Power of String

일 시 | 3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KNN방송교향악단 850-9568



클래식 음악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된 '지휘자 서희태의 톡 클래식'.

KNN방송교향악단 음악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인 서희태가 직접 이야기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유쾌한 해설과 감동적인 연주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통해 클래식의 진정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Power of String'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현악기의 깊고 풍부한 음색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현악 앙상블의 매력을 선사한다.

- 지휘/서희태 • 바이올린/김혜정
- 연주/KNN방송교향악단

2025 부산시니어합창제

삶의 노래, 함께 부르는 희망의 합창

일 시 | 3월 29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5세 이상 관람)
문 의 | 부산시니어합창단연합회 010-2576-8766



인생 2막을 노래하는 부산의 시니어합창단이 참여하는 2025 부산시니어합창제.

이번 무대에서는 2010년 5월 설립된 후 각종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여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던 부산은파합창단을 비롯하여 8개 시니어합창단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출연

부산은파합창단(지휘/우원석)
더부산콘서트콰이어(지휘/전상철)
해운대 We Road Choir(지휘/권영기)
부산중구시니어코러스(지휘/이은정)
부산대 시니어 경헌 해파콰이어(지휘/이외균)
예그린합창단(지휘/손옥)
남구립울드합창단(지휘/고영호)
부산시 시니어 연합합창단(지휘/김성복)

소프라노 김서영 귀국 독창회

일 시 | 3월 29일 토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김서영 010-5812-3042



▼▼
경남대학교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도이, 파르마 A. Boito 국립음악원 석사과정을 만점 졸업하고 Melos Accademia에서 지휘와 뮤지컬 디플로마를 취득한 소프라노 김서영 귀국 독창회.

김서영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여러 국제성악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Perugia harmonica' 콩쿠르 1등을 비롯하여 'Enzo Sordello' 콩쿠르에서는 '밤의 여왕' 역으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 외에도 'Franco Ghitti', 'Lirico Piero Boni', 'Ruggiero Leoncavallo' 콩쿠르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김서영은 현재 경남대학교 외래교수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박대식

해피버스데이 피아졸라 - 쿼트로시엔토스

일 시 | 3월 30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R석 5만5천원, S석 4만5천원
문 의 | ㈜스토펙뮤직 02-2658-3546



▼▼
3월 11일 '탱고의 황제' 피아졸라의 생일을 맞아 그의 전설적인 탱고음악을 만날 수 있는 '해피버스데이 피아졸라'.

특히 이번 무대는 2007년 첫 내한 공연 후 '피아졸라의 재현'이라 불리며 10여 년간 전석 매진을 기록한 일본의 탱고 밴드 '쿼트로시엔토스'가 함께하는 무대로, 비올리스트 이신규의 유쾌하고 재미있는 해설과 더불어 피아졸라만의 탱고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세대가 지나도 명곡으로 사랑받고 있는 'Libertango', 'Oblivion', 'Adios Nonino' 등의 곡은 물론 피아졸라만이 가진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를 만날 수 있다.

• 해설/비올리스트 이신규

부산시민회관

마술사 최형배의 오리지널 과학 미술콘서트-공룡편

일 시 | 3월 1일-2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4만원
(24개월 이상 관람가, 예매시 할인)
문 의 | 원더매직 070-4202-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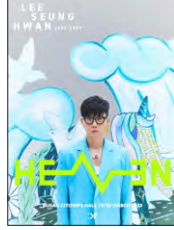
▼▼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을 주제로 한 마술공연, 마술사 최형배의 오리지널 과학미술콘서트.

과학마술의 비밀을 마술로 풀어내며 감성을 자극하는 신비로운 마술쇼로, 특히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마술사 최형배는 2006년 MBC '뽀뽀뽀 유치원'에 마술사로 출연하여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으며, 마술사 최초로 한국과학관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과학관협회 워크숍에 초청받아 강연과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무대는 공룡을 주제로 한 최초의 마술 공연으로, 공룡과 관련된 재미난 콘텐츠들로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일 시 | 3월 29일 토요일 오후 6:00, 30일 일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5만4천원, S석 13만2천원
문 의 | ㈜하늘이엔티 1688-6675



▼▼
'공연의 신(神)' 이승환 데뷔 35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 'HEAVEN' 부산공연. 이승환은 국내 최초로 '전국 투어'라는 말을 브랜드화시킨 가수로, 1990년

대 '무적투어'를 시작으로 그동안 전국투어를 통해 진정한 콘서트의 의미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팬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가져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한민국 콘서트의 수준을 끌어올린 진화와 변화를 멈추지 않는 영원한 현역 이승환이 데뷔 35주년을 맞아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정교하게, 가장 세련되게, 가장 재미있게 기획한 무대를 통해 팬들과 만난다.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일 시 | 3월 7일 금요일 오후 2:00, 7:30, 8일 토요일 오후 2:00, 5:00 **전시실1**
입 장 료 | 전석 3만원(13세 이상 관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배우와 관객이 직접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연이은 매진과 호평을 받은 영국의 젊은 극작가 던컨 맥킬란의 작품으로, 배우 한 명의 독백으로 진행되는 1인극이자 관객 참여로 만들어지는 이머시브(관객참여형) 연극이다.

관객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 특별한 작품은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서 빛나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온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칫 심각하고 비관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작가는 따뜻하면서도 희망적으로 그려낸다.

특히 이번 작품은 '연극이 주는 최고의 경험'이라는 찬사처럼 진정한 관객 참여극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2025 제20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매직 판타지아

일 시 | 4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13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4만원(부산시민 30% 할인)
문 의 | 원더매직 070-4202-2200



▼▼
신비하고 환상적인 마술의 세계로 떠나는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매직 판타지아'.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자 신학기 특집 프로그램으로, 새학기 시작의 설렘을 담아 더욱 더 특별하고 버라이어티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으로, 서커스 매직, LED 판타지, 클래식 매직, 매직 하모니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찔하고 숨막히는 신기로운 마술세계가 펼쳐진다.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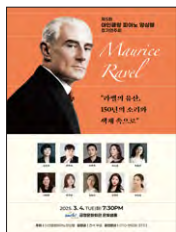
제5회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블 정기연주회
Maurice Ravel

일 시 | 3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블 010-9928-3733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 중 음악적 이해와 해석, 가치관이 맞는 연주자들이 모여 구성한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블

정기연주회.

독일어로 '하모니, 조화'를 뜻하는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블은 탁월한 음악적 해석과 연주를 선보이며 전문음악인들과 청중들로부터 호평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라벨의 대표곡을 피아노 듀오 연주로 들려준다.

- 연주/김진희, 허부성, 이현욱, 곽소정, 박필은, 서혜원, 반지영, 김혜선, 오혜진, 박지은
- 스페셜 게스트/김영민, 송희철

2025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예감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일 시 | 3월 5일(수), 26일(수) 오후 7: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예술회관 631-1377



일상의 침표가 되어줄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5일(수) 국악퍼포머 청청 전통 국악에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국악퍼포머 청청이 장구, 사물놀이, 태평소 등 다양한 국악기의 연주와 함께 신나는 무대를 펼친다.

팀명인 '청청'은 '생기가 있어 맑고 푸르다'는 뜻.

26일(수) 춤패 배김새

전통춤을 기반으로 지역적 특색과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춤패 배김새의 '새봄맞이 출판'.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춤열림(청신)'을 비롯하여 진주교방굿거리춤, 진도북춤, 권명화류 소고춤, 비나리와 살풀이춤, 배김하트춤 등 희망과 염원을 담은 다양한 한국춤을 선보인다.

제98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국향만리
민우혁 with 2025 신춘음악회

일 시 | 3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을사년 새봄을 맞아 을숙도문화회관이 마련하는 2025 신춘음악회.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감성적인 지휘로 정평이 나 있는 홍희철 지휘자가 지

휘하는 부산국악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국내 정상급 뮤지컬 스타인 민우혁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수석 윤해송, 연희퍼포머그룹 처랏이 출연,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민우혁은 뮤지컬 '영웅', '레미제라블', '지킬 앤 하이드', '위키드' 등에서 주연을 맡은 정통파 뮤지컬 배우로, 이번 무대에서는 출연 뮤지컬의 넘버를 들려준다.

H-클래식 특! 특! 특!(Talk) 실내악 페스티벌

일 시 | 3월 19일(수)-22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학생 20% 할인)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지휘자 오충근, 이동신을 초청, 그들의 해설과 진행으로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하는 H-클래식 '특! 특! 특!(Talk) 실내악 페스티벌'.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은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로 있으며, 이동신은 창원마산시립교향악단 및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창원대학교 교수로 있다.

19일(수) 2025 BSO 솔로리스트 챔버 시리즈Ⅲ
프로그램

드보르작/현악 4중주 제12번 바장조 작품 96 '아메리칸'

슈만/피아노 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

- 예술감독, 해설/오충근
- 연주/바이올린 김주영·손은혜, 비올라 박지수, 첼로 정지은, 피아노 강형은



20일(목) Lumen Festival quartet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바장조

K.138

쇼스타코비치/현악 4중주 제8번

드보르작/현악 4중주 제12번 작품 96

- 예술감독, 해설/이동신
- 연주/바이올린 장원영·신효은, 비올라 황여진, 첼로 양옥진



21일(금) 2025 BSO 솔로리스트 챔버 시리즈Ⅳ

프로그램

비제/오페라 '카르멘' 모음곡

호로비츠/금관 5중주를 위한 뮤직

홀 모음곡 작품 5

베토벤/6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71(5중주 버전)

그리브스/모차르트의 터키 락 맘보

케이먼/5중주

콤포넵/금관 5중주를 위한 길러 탕고

가너/미스티(그라프 편)

- 예술감독, 해설/오충근
- 연주/목관5중주팀(플루트 이주형, 오보에 조성현, 클라리넷 백동훈, 바순 양희경, 호른 이민정), 금관5중주팀(트럼펫 최혁준·김희수, 호른 강민주, 트럼본 손무정, 튜바 서영찬)

22일(토) 레이디스 필 앙상블

프로그램

알비노니/아다지오

바흐/무반주 모음곡 제1번 '프렐류드'(피아노 가이즈 버전)

카치니/아베마리아(레이디스필 버전)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존 루터/현을 위한 모음곡

피아졸라/리베로탱고

피아졸라/푸가 9

- 예술감독, 해설/이동신
- 연주/바이올린 조은비·심해수·진혜민·정희수, 비올라 최영화, 첼로 전수정, 더블베이스 임미형, 피아노 이수민, 퍼커션 최예나

브릴란트 플루트 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3월 16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지음아트 010-3146-8434



플루티스트 정애라, 김승연과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브릴란트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빛나는 플루트’라는 뜻을 지닌 브릴란트 플루트 앙상블은 매회 연주를 거듭하며 기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클라리네티스트 홍병희 클래스와 함께하는 무대로, 플루트와 클라리넷의 아름다운 앙상블을 감상할 수 있다.

- 플루트/정애라, 김승연, 구주아, 이하정, 이주하, 박재연, 강연지
- 클라리넷/홍병희, 문준서, 박주형, 박재경
- 피아노/박윤정

오페라 오디세이 시리즈 I

신춘음악회 봄 ‘Garden of Music’

일 시 | 3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린아트오페라단 010-5897-0388



린아트오페라단이 기획한 오페라 오디세이 시리즈의 서막을 여는 특별한 무대 ‘가든 오브 뮤직’.

오페라 오디세이 시리즈는 단순히 오페라를 선보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경계를 넘어서는 창의적 융합을 지향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꽃을 주제로 한 한국가곡의 서정미로 봄날의 따스함을 선사하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달빛 아래 사랑을 노래하는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으로 깊은 여운을 더해준다.

- 예술감독/박소연 • 음악코치/이현주
- 소프라노/장은영, 임혜정, 윤지영, 윤비연
- 테너/조윤환 • 바리톤/최모세

제12회 스페셜 아티스트 부산독일가곡연구회와 함께 하는 신춘음악회

일 시 | 3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수준높은 무대를 선사하는 울속도문화회관 스페셜 아티스트.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에 수학한 성악가들로 결성된 부산독일가곡연구회가 출연, 새봄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작은 앙상블 미래필하모니의 협연으로, 대중들이 좋아하는 애창곡들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눈과 귀가 즐거운 독일 오페레타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제21회 라이징뮤지션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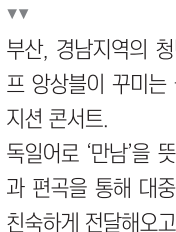
Move in Busan

일 시 | 3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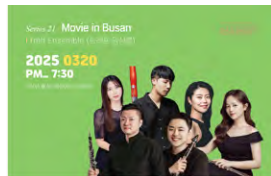


부산, 경남지역의 청년 음악가들로 구성된 트레프 앙상블이 꾸미는 울속도문화회관의 라이징뮤지션 콘서트.

독일어로 ‘만남’을 뜻하는 트레프 앙상블은 해설과 편곡을 통해 대중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보다 친숙하게 전달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의 정취가 묻어나는 다양한 영화 속 수록곡들을 트레프 앙상블의 편곡과 연주로 들려준다.

- 플루트/김가영 • 클라리넷/강상모
- 오보에/문동원 • 바순/김가원
- 피아노/김수연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모던국악밴드 탈피

일 시 | 3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전통적인 국악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친숙하고 재미있는 공연으로 관객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던국악밴드 탈피(TALPI)의 무대.

지난 2022년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각자의 음악적인 색깔과 경험을 바탕으로, 팀을 통해 성장하고 기존의 관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기 위해 창단한 ‘탈피’는 그동안 무대, 관객, 연주자가 하나되는 소통하는 공연을 가져오고 있다.

영도의 자연을 컨셉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총 3부로 나뉘어 영도의 자연, 영도의 밤, 영도의 산을 주제로, 자작곡을 포함하여 서동경, 새타령과 같은 전통음악, 국악으로 재해석한 대중가요, K-POP 등을 들려준다.

녹턴 스트링 콰르텟 제14회 정기연주회 A Baroque Evening

일 시 | 3월 22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녹턴 스트링 콰르텟 010-8421-5491



2017년 창단된 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바로크부터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관객들에게 소개해온 녹턴 스트링 콰르텟의 정기연

주회.

특히 이번 무대는 관현악과 하프시코드가 어우러지는 풍부한 앙상블 속에서 다채로운 바로크 음악의 생동감과 섬세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로, 바로크 시대의 열정과 우아함을 담아낸 코렐리와 바흐의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 바이올린/금잔디, 이상영, 김다경, 이상명
- 비올라/김준형, 김명복
- 첼로/김동준, 조원교
- 하프시코드/강주호
- 특별게스트/김성식(플루트)

조용운 타악기 독주회

일 시 | 3월 23일 일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후와유크퍼니 010-2431-2170



정확한 리듬과 열정적인 연주로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는 탁월한 퍼커셔니스트 조용운 독주회.

계명대학교 음악학과 재학 중 도독, 아현 국립음대를 수료하고 솔리스트와 현대음악에 대한 열망을 해소하기 위해 데트몰트 국립음대에 진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조용운은 그동안 국제적인 무대를 통해 전문연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왔다. 조용운은 현재 V.I.P(Variation In Percussion) 타악 앙상블 음악감독이자 2BCO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대표로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 마림바/Fumito Nunoya
- 퍼커션/김세연, 서지형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봄과 함께 다가온 너

일 시 | 3월 23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만 5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송정에 자리한 문화공간 '첼리스트의 서재'가 기획한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3월 무대.

새봄을 맞아 '어연히(어디서든 연주가 가능한 히든 플레이스)' 대표 첼리스트 이명로와 그라스네 앙상블 단장이자 '첼리스트의 서재' 대표 피아니스트 박민희, '어연히' 부대표 플루티스트 신혜원, 해운대 인기 버스커 '곰꾸는 요리사'로 유명한 아코디언리스트 심성훈,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첼로 단원 이석민으로 구성된 그라스네 앙상블이 지브리 음악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 사회/김승연
- 연주/그라스네 앙상블

제61회 예술공감

Who are you? 번스타인?

일 시 | 3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지휘자이자 작곡가, 작가, 음악교육가, 피아니스트로 다방면에 천재성을 보이면서 '20세기 음악의 다빈치'라고 불리었던 거장 번스타인을 주제로 한

특별한 무대 'Who are you? 번스타인?'.

번스타인은 뉴욕 필하모닉 최연소 음악 감독에 임명되며 당대 최고의 지휘자 자리에 올랐고 지휘부터 작곡, 음악 교육까지 전방위적인 예술 활동을 펼치며 가장 미국적인 음악가로서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천재적인 음악성이 묻어나는 다양한 곡들로 번스타인의 생애를 이해하며 명곡의 세계로 관객을 초대한다.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의 오페라페 시즌 II

오페라와 떠나는 인문여행 라 트라비아타

일 시 | 3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1층) 2만원, A석(2층)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예술전문 유튜브 채널 '부티난다' 진행자이자 전문 해설자, 인문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과 함께하는 오페라페 시즌 두 번째 무대.

오페라와 떠나는 인문여행으로, 현재 전 세계 무대에서 가장 자주 공연되는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만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김은경과 테너 이태흠, 바리톤 나현규가 '라 트라비아타'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 콘서트 가이드/김성민
- 소프라노/김은경
- 테너/이태흠 • 바리톤/나현규
- 피아노/이현아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 독창회

김연준 가곡 콘서트 '남자의 사랑과 생애'

일 시 | 3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세계 최정상의 드라마틱 바리톤 고성현 독창회.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과 밀라노 라스칼라 오페라 아카데미아,

오지모 아카데미아를 졸업한 고성현은 유학시절 이탈리아 푸치니 국제 콩쿠르 1위, 이탈리아 나비부인 국제 콩쿠르 1위, 독일 슈트트가르트 오페라 극장 국제 콩쿠르 1위,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콩쿠르 1위 및 '호세카레라스 상', '가장 아름다운 소리 상' 등을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국내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바리톤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옥관문화훈장(대통령상)을 수훈했으며, 이 밖에 난파 음악상, 젊은 음악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공연전통예술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고 최근에는 국내 오페라 발전에 기여한 공

적을 인정받아 제1회 대한민국 오페라 어워즈 금상을 수상했다.

세계 유수의 오페라 무대에서 풍부한 성량과 아름다운 질감의 목소리로 '동양에서 온 대포', '콰트로 바리토리(4명 몫을 하는 바리톤)'라고 불리며 유럽의 오페라 팬을 놀라게 했던 고성현은 2005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국립극장에서 오페라 '나부코' 8회 공연을 마치고 1만5천명 관객으로부터 '한국에서 온 모세'라는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오페라 '리굴레토', '아이다', '팔리아치', '카발레리아 루스타카나', '시몬 보카네그라' 등 수많은 오페라 작품의 주역으로 세계 무대에 선 고성현은 현재도 세계 무대를 누비며 한국을 빛내는 성악가로 활약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고성현은 '남자의 사랑과 생애'라는 주제로 한국 가곡을 대표하는 작곡가 김연준(1914~2008)의 곡들로 무대를 꾸민다.

특히 '청산에 살리라', '비가', '눈', '무곡' 등 서정적인 가사와 아름다운 선율이 많은 사랑을 받아 온 김연준의 대표곡들을 중심으로 대중에게 익숙한 곡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곡까지 그의 음악세계를 깊이 탐구하며 한국가곡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한다.

- 피아노/홍지혜

부산 피아노 트리오 스승과 제자

일 시 | 3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부산 피아노 트리오 010-8325-3588



▼▼
국내 최장수 트리오인 부산 피아노 트리오가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부산 피아노 트리오

지난 2015년 새로운 멤버들로 교체된 후 다채로운 선곡과 뛰어난 곡 해석력으로 크고 작은 무대에서 부산의 청중들과 꾸준히 만나며 실내악의 아름다움을 관객들에게 선사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인 '스승과 제자'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한 **故 김진문** 선생과 제자인 **동 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로 이어지는 스승과 제자의 연을 곡으로 표현하고자, 같은 사제관계인 **드보르작**과 그의 제자 **수크**와 **노박**의 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체코의 민족성과 감성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만나는 **드보르작 '피아노 트리오 제3번'**은 **드보르작** 트리오 중 가장 대곡으로 음악회에서 쉽게 듣기 힘든 명곡이다.

2025 봄을 알리는 콘서트

카이 & 손승연

일 시 | 3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1층) 3만원, S석(2층) 2만원
(초중고생 30% 할인)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해운대문화회관이 개관 18주년을 기념하며 마련하는 신춘음악회 '2025 봄을 알리는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팜페라** 가수 **카이**와 폭발적인 가창력의 가수 **손승연**을 초청, 활기찬 새봄의 기운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클래식을 전공하여 소리와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지닌 **카이**는 안정적인 넘버 소화력과 연기로 많은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보이스 코리아' 우승자이자 '복면가왕' 8연속 가왕의 자리를 지켰던 **손승연**은 깔끔한 음색과 파워풀한 고음으로 수많은 방송과 경연에 참가하며 화제를 모았다.

3월 굿모닝콘서트

위즈 앙상블의 커피 플레이어리스트

일 시 | 3월 28일 금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

(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
자연 속 정원에 자리 잡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모닝커피와 함께 즐기는 굿모닝콘서트 3월 무대.

폴란드에서 수학한 한국 연주자들로 구성된 위즈

앙상블의 무대로,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연상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특히 커피를 사랑한 작곡가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커피에 얽힌 음악적인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커피와 음악을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부산C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봄의 소리 콘서트

일 시 | 3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
부산CBS 창립 66주년을 기념하여 부산C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신춘음악회 '봄의 소리 콘서트'.

지휘자 정두환이 이끄는 부산CBS교향악단이 연

주하고 **트럼페터 알렉스 볼코프**,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양승엽**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주페의 '경기병 서곡'을 시작으로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3악장, 한국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그리고 드보르작 '신세계로부터' 등 새 봄에 어울리는 경쾌한 곡들을 들려준다.

- 지휘, 해설/정두환
- 연주/부산CBS교향악단
- 메조소프라노/양송미
- 테너/양승엽
- 트럼펫/알렉스 볼코프

글로벌문화예술콘텐츠협회 초청기획시리즈

세 번째 초청작곡가 임주섭 작곡 발표회

일 시 | 3월 29일 토요일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글로벌문화예술콘텐츠협회 010-2202-0845



▼▼
글로벌문화예술콘텐츠협회가 마련하는 초청기획 시리즈 세 번째 무대 '임주섭 작곡 발표회'.

현재 영남대학교 교수로

있는 작곡가 **임주섭**은 오페라, 뮤지컬, 다수의 합창곡과 가곡, 피아노 및 관현악을 위한 수많은 작품을 발표했으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바탕으로 제17회 금북문화상, 제41회 대구음악상 본상, 제37회 대한민국 작곡상, 제39회 대한민국 작곡상 등을 수상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으로 있는 **테너 한용희**의 해설 및 연주와 함께 영남대학교 피아노 박사수로 및 음악학 박사과정 정효인, 고신대학교 초빙교수 **김태윤**의 연주로 임주섭 작곡가의 성악 및 피아노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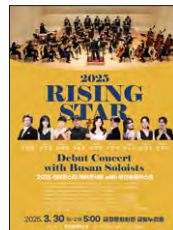
2025 라이징스타 데뷔콘서트 with 부산솔로이스츠

일 시 | 3월 30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솔로이스츠 010-8524-0069



▼▼
젊고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의 차세대 연주단체인 부산솔로이스츠가 부산 음악계의 신인 연주자와 함께하는 무대.

2019년부터 매년 3월 열고 있는 '라이징스타 데뷔콘서트 with 부산솔로이스츠'는 그동안 지역의 패기있고 우수한 신인 연주자들을 발굴하면서 부산음악계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명예교수)
- 피아노/이채원(계명대 1학년), 이주연(계명대 3학년), 김민재(부산예고 3학년), 김수지(이화여대 3학년), 성유진(경남대 졸업), 이예지(부산대 4학년)
- 바이올린/임채영(두실초등 4학년)
- 첼로/조동준(부산예중 3학년)

연극

뮤지컬 나의 PS파트너

일 시 | 1월 3일(금)-3월 23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3/4일 휴관)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만 19세 이상 관람가, 예매시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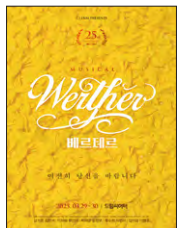


역대 19금 로맨틱 코미디 영화 중 최단기간인 10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여 화제를 낳았던 동명의 영화를 무대화한 연극 '나의 PS파트너'.

기존 로맨틱 코미디극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설정으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 이번 무대는 특히 원작의 큰 틀을 무대로 가져오되 극적 재미, 등장인물들 간의 감정선, 현실감 있는 연애담을 극 속에 더욱 밀도있게 그려내며 영화와는 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뮤지컬 베르테르

일 시 | 3월 29일-30일 토·일요일 오후 2:00, 6:30 드림씨어터
입 장 료 | VIP석 16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괴테의 고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재해석한 창작뮤지컬 '베르테르'.

지난 2000년 초연된 후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베르테르'는 섬세한 성격의 청년 베르테르와 그가 짝사랑한 롯데, 그리고 그녀의 약혼자 알베르트의 관계를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과 고통을 극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2002년부터 7번의 시즌을 함께한 '베르테르 장인' 엄기준과 특유의 감미로운 보이스의 '멜로망스' 김민석이 베르테르 역을 맡아 각기 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특히 챔보오케스트라의 감미로운 연주와 아름다운 선율의 넘버에 완벽한 마침표 찍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무대가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일 시 | 3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15일 토요일 오후 2: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문 의 | ㈜전공이엔티 1522-2061



현대 희곡의 거장 아서 밀러의 대표작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1949년 브로드웨이 초연 후 풀리처상과 토니상, 뉴욕 연극 비평가상 등 연극계 3대상을 모두 휩쓸었고 국내에서도 여러차례 각색되어 무대에 오른 '세일즈맨의 죽음'은 평범한 세일즈맨 윌리 로먼이 대공황이라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직업과 가족을 잃어 가는 과정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과 삶,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배우 박근형을 비롯하여 예수정, 박은석, 김보현, 신현종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배우들과 시대를 관통하는 명작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어린이뮤지컬 피터래빗

일 시 | 3월 30일 일요일 오후 1:00, 3: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예매시 2만2천원, 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조이컬처 070-7807-0701



전세계 1억만부 이상 판매된 영국의 동화작가 베아트릭스 포터의 베스트셀러 명작동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피터래빗'.

용감하고 꾀가 많은 피터는 모두의 해결사이자 친구이다. 어느 날 평화로운 마을에 교활한 도둑여우 토드와 여러바리한 도둑고양이 삼킨이 나타나면서 마을의 물건들이 하나씩 없어지자 피터와 마을 사람들은 도둑을 잡기 위한 꾀를 내는데... 과연 피터는 못된 도둑을 몰아내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특히 이번 무대는 동화 속 친구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용기와 교훈을, 부모에게는 따뜻한 동심을 전달한다.

가족뮤지컬 라퐁젤

일 시 | 3월 23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2만4천8백원 (예매시 적용, 전체관람가)
문 의 | ㈜희망극단 070-7311-3149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림형제의 동명의 동화를 뮤지컬로 새롭게 각색한 '라퐁젤'.

장장 18년을 탐 안에서 지난 끈기만점의 소녀 라퐁젤은 어느날 자신의 탐에 침입한 왕국 최고의 대도를 한방에 때려잡고 꿈에도 그리던 집밖으로의 모험을 단행한다. 그런 그녀 앞에 병사의 추격과 함께 가짜엄마 마녀의 무서운 음모가 얹히면서 점점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터지는데, 과연 앞으로 라퐁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배우들의 화려한 춤선과 열정적인 라이브, 그리고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현장 감 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무용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 웃음을 잃지 마세요

일 시 | 3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8일 토요일 오후 5:00 금천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 070-4252-3883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다룬 블랙코미디 무용 공연 '웃음을 잃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한 광대가 주인공으로 등장, 우스꽝스러운 자기 모습에 행복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페르소나를 만들어 내면서 점차 자아를 잃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자신이 만들어 낸 여러 페르소나에 잠식되어가는 광대의 여정은 클래식 발레를 베이스로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안무와 미니멀한 무대가 절묘한 조합을 이루어 작품의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 안무/조현상

2025 이태상 프로젝트 신작 TANGLE 영킴

일 시 3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이태상 프로젝트 999-5363,
010-7725-2501



▼▼
위트 있는 안무와 연출로 무용 공연예술의 대중성을 이끌어온 이태상프로젝트의 2025 신작무대 'TANGLE 영킴'.

이태상 예술감독은 중앙대학교 무용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아무용공쿠르, 신인무용공쿠르를 비롯해 전국대학무용공쿠르에서 안무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2002년부터 '잡종 블루스', '게르니카', '괴벨스의 입', '뿔난 낙타' 등 꾸준히 신작을 발표해오고 있다. 이태상은 현재 신라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예술감독, 안무/이태상 • 연출/김태훈

행사

3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 장 료 전석 2만5천원
문 의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
국내 최대 수준의 오페라, 콘서트 영상물을 구비하고 있는 오페라바움은 실제 공연을 관람하기 전 감상회를 통해 충분한 연습 시간을 제공하며 연주자를 초청, 작은 연주회를 여는 등 클래식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월에는 매주 월요일 고전·낭만·현대 음악을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셰익스피어 특집 오페라, 매주 토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사전 해설과 감상 후 참여자의 자유토론, 감상소감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오페라/구노 '로미오와 줄리엣'(7일~8일), 앙브루아즈 토마 '험릿'(14일~15일), 베르디 '오텔

영상

해운대문화회관 On Screen Concert 거슈윈 영화음악 콘서트

일 시 3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전석 5천원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평가받는 조지 거슈윈의 영화 음악 콘서트 실황을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해운대문화회관 On Screen

Concert.

이번 영상은 영국의 방송국 BBC에서 여름 시즌 클래식 콘서트와 음악 콘서트로 만든 BBC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1년 영국 로열 앨버트 홀에서 공연된 실황 영상이다.

지휘자 존 윌슨이 지휘하는 존 윌슨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할리우드 전성기 작품 중 가장 음악성 높은 영화 삽입곡을 들려준다

로'(21일~22일), 베르디 '맥베스'(28일~29일) 콘서트/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3일, 8일), 빌라로보스 '쇼로스 제10번'(10일, 15일), 그리고 피아노협주곡(17일, 22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3번(24일, 29일),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5번(31일)

김옥균의 클래식뮤직아카데미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다송 뮤직 스튜디오
입 장 료 10만원(2개월)
문 의 김옥균 010-6367-0149



▼▼
MBC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뮤직 아카데미'.

콘서트

'THE이재훈_31년' 단독 콘서트

일 시 3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 장 료 VIP석 13만9천원, R석 12만9천원
문 의 ㈜월드쇼마켓 1566-5490

2025 권인하 전국투어 콘서트

일 시 3월 15일 토요일 오후 6:00
영희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R석 12만1천원, S석 11만원
문 의 굿초이스 1833-4581

2024-25 Theatre 이문세

일 시 4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6:00 드림씨어터
입 장 료 R석 17만원, S석 15만, 붉은노을석 9만원
문 의 ㈜공연마루 1588-0766

불면증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클래식 음악감상과 함께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 연주회 실황 등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클래식 입문자 환영.

프로그램

비발디 '사계' 중 '봄', 헨델 '수상음악', 슈만 교향곡 '봄', 비제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 '봄', '봄' 주제 한국 서정 가곡 영상감상회, 뮤지컬음악영화 '미스 사이공', 베토벤 교향곡 제7번, 코랄 판타지, 차이콥스키 발레음악 '백조의 호수'

제199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일 시 3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문 의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화회
010-63670-0149

▼▼
• 초대시인/박희동, 박영점 시인
• 사회/김병래(전 KBS 아나운서)
• 초청음악가/가수 임미자, 바리톤 한성권

3월 아카데미 시네바움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6일(목) 오후 2:00
20일(목) 오후 2:00, 5:00
시네바움
문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6일(목), 20일(목)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

10일(월) 간송 미술관과 전형필

• 강의/최석태(미술평론가)

17일(월) 리움 미술관과 이근희 컬렉션

• 강의/최석태(미술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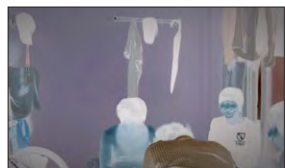
24일(월) 수학과 현대음악

• 강의/김보현(현대음악작곡가)

27일(목) 하이쿠 산책

31일(월) 시네바움 스크리닝 '시네마 연노운: 블랙-아웃(2020, 10min)'

• 참석/김영광(감독), 문형근(진행, 영화평론가)



영도문화예술회관 특별 기획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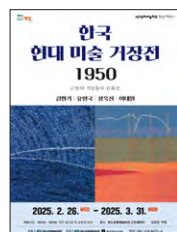
한국 현대미술 거장전 1950

근현대 거장들의 판화전

일 시 | 2월 26일(수)-3월 31일(월)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 장 료 | 무료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김환기, 유영국, 장욱진, 이대원의 작품을 판화와 아트포스트 형식으로 소개하는 '근현대 거장들의 판화전'.

이번 전시에서는 점과 면을 활용한 독특한 미술 기법인 전면점화 시리즈의 김환기 작가, 추상의 시작점이자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장욱진 작가, 색면추상으로 고향의 산과 바다를 모티브로 작업하는 유영국 작가, 점묘법의 대가 이대원 작가 등 그들의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사의 흐름을 조망해본다.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50
해운대문화회관 3층 회의실
입 장 료 | 12만원, 1회 청강비 2만원
(현장강의 9회, 음악회 1회)
문의 | 박진영 010-3642-6436(문자 문의)



뮤직가이드 박진영과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각 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을 위주로, 유명 연주자의 연주를 영상과 함께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상업 후에는 각 나라의 민요, 가곡, 뮤지컬, 클래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배울 수 있으며, '세-음-여 중창단' 활동 또한 가능하다.

2월부터 석 달간 진행되는 2025년 1분기 강좌에서는 생상스, 비제, 라벨, 포레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음악세계를 살펴본다.

박진영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 외래교수로 있으며 현재 해운대문화회관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라 개인전 무채색의 향기

일 시 | 3월 5일(수)-3월 14일(금)
BNK부산은행갤러리
문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www.bnkgallery.co.kr

흑백, 회색의 미묘한 음영이 자연의 단순함과 고요함을 표현하는 작품들로, 세상의 복잡함을 벗어나 고요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미라 개인전 '무채색의 향기'.

김형선 개인전 꽃, 생명의 순환

일 시 | 3월 11일(화)-3월 23일(일)
갤러리한스
문의 | 갤러리한스 784-0233



자연의 무한한 생명력을 꽃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유기적 소산물인 인간과 자연(꽃)의 순환 관계를 재현한 김형선 개인전 '꽃, 생명의 순환'.

• opening/3월 15일(토) 오후 3:00

전시

독일 현대미술의 거장展

크리스토프 루크헤베를레

일 시 | 2024년 9월 14일(토)-3월 30일(일)
포디움 다아트 엠
입 장 료 | 일반 1만5천원(19세 미만 1만3천원)
문의 | ㈜크리스카홀딩스 752-2200

이토 준지 호러하우스

일 시 | 2024년 12월 14일(토)-6월 8일(일)
DUEX 부산
입 장 료 | 일반 2만5천원, 청소년 1만9천원
(만 14세 이상 관람, 평일 예매시 10% 할인)
문의 | ㈜덕스앤덕스 02-2261-1393

부산현대미술관 기획전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

일 시 | 2024년 11월 30일(토)-3월 16일(일)
부산현대미술관
문의 | 부산현대미술관 220-7400~1

이기태 개인전

일 시 | 3월 17일(월)-3월 24일(월)
BNK부산은행갤러리
문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오랜 시간 예술을 통해 감성과 철학을 탐구하며 독창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해온 원로작가 이기태 개인전.

제4회 부산중구미술인협회전

봄빛, 초록바다에 물들다

일 시 | 3월 25일(화)-4월 3일(목)
BNK부산은행갤러리
문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지역 미술인의 창작 열정과 예술적 교류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로, 예술의 향기를 느끼며 작품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감성을 나누는

제4회 부산중구미술인협회전.



알고 보면 반할 초상

이성훈 지음
태학사 / 2만4천 원

이성훈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조선시대 초상화에 얹혀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당대 정치 사회 문화상을 추적·해설한다. 조선시대에 초상화 제작을 의뢰 받은 화가에게 요구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누구라도 주인공을 단번에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닮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송나라 유학자 정이의 “터럭 하나라도 더 많으면 곧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자주 인용되었다. 화가들은 주인공의 모습을 더 닮게 그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회화 기법상의 큰 진전을 이루었다. 외형 못지않게 내면 즉 정신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도 중시되었는데, 이때는 주인공의 특징적인 면을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부각한 경우가 많았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진’, 충성심의 증표로 왕이 하사한 ‘신하 초상’, 각 당파나 학파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그려진 ‘스승 초상’, 지방 수령과 백성들의 이해관계에서 생겨난 ‘목민관 초상’, 출사와 은일 사이의 고뇌가 담긴 ‘사대부 초상’, 사랑과 애도의 마음이 담긴 ‘벗과 가족의 초상’. 저자는 조선시대 초상화 120점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미술사적 의미와 흐름을 밝히고, 정치 사회 문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추적한다.



유혹하는 경복궁

박찬희 글 / 이의열·이가명 사진
빨간소금 / 1만7천 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동영상 보면 경복궁을 방문하는 장면이 단골로 등장한다. 외국인 관광객뿐이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조선의 정궁이었던 경복궁을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경복궁을 제대로 알고 보는 걸까. 경복궁에 처음 가거나, 다른 눈으로 보고 싶거나, 경복궁을 천천히 거닐고 싶은 사람을 위한 경복궁 안내서가 나왔다. 박찬희의 ‘유혹하는 경복궁’이다. 박찬희박물관 연구소 소장인 저자는 대학에서 역사를, 대학원에서 한국미술사를 공부하고 박물관에서 일했다. 지난 몇 년간 경복궁에 폭 빠져 살았다. 이 책의 부제목이 ‘경복궁에 폭 빠진 사람의 시선’이다. 저자는 3년 동안 홀로,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경복궁을 살살이 훑었다. 이 책은 경복궁에서 느낀 감동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책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발해 경복궁을 걷는 주요 동선에 따라 권역별로 구성됐다. 뒷부분에서는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던 특별한 곳을 다뤘다. ‘출발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로 시작하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 저자가 옆에서 나란히 걸으면서 경복궁 이야기를 조곤 조곤 들려주는 것 같다.



위로하는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 편지 / 김한식 옮김
민음사 / 2만4천 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달래주는 예술이 아닐까요? 그리고 당신과 나처럼, 많지는 않아도 여전히 그것을 느끼는 예술가들이 많이 있을까요?” 반 고흐가 1889년 1월 21일 고갱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이다. 반 고흐가 쓴 편지는 모두 844통이 전해진다. 이 책에는 고흐의 예술과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편지 75통을 골라 발췌 번역했다. 화가의 예술철학은 그의 삶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고흐의 편지는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소중한 자료다. 이 책에 수록된 편지는 “전보다 내가 화가라는 느낌은 더 커졌다”며 화가로서의 뚜렷한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1888년 이후의 편지들이기 때문에 특히 예술가로서 고흐를 이해할 수 있는 생각들이 많이 담겨 있다. 고흐가 화가로서 한층 성숙해진 아를 시절에 시작하여 고흐와의 불화로 자신의 귀를 잘라낸 사건으로 인해 생애미요양원을 거쳐 오베르쉬르우아즈에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까마귀가 나는 밀밭> (1890년) 같은 걸작들을 쏟아내기까지 시기의 편지를 담았다. 이 책에 수록된 고흐 그림만 170점인데 초기작보다는 주로 1888년 이후의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제11기 SNS서포터즈 제3기 주부홍보단 출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재)부산문화회관 제11기 SNS서포터즈와 제3기 주부홍보단이 2월 14일과 21일 각각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평소 문화예술행사를 사랑하고 SNS를 통한 홍보활동에 관심이 많은 부산지역 학생 및 직장인, 그리고 주부들로 구성된 (재)부산문화회관 SNS서포터즈와 주부홍보단은 그동안 (재)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립예술단이 주최하는 공연, 전시 소식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공유하며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부산시민들에게 알려왔다.

이번 제11기 SNS서포터즈와 제3기 주부홍보단은 오는 12월 까지 운영되며, 활동 기간동안 서포터즈들에게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전시,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등 일부 공연 및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수료 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19일에는 제11기 SNS서포터즈와 제2기 주부홍보단의 활동을 마감하는 수료식이 열리기도 했다.

석포교회 정기회원 단체가입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하고 있는 석포교회가 올해도 정기회원에 단체가입

했다. 부산문화회관 인근에 자리한 석포교회는 지난 1969년 개척된 후 '하나님께 기쁨되고 세상에 소망주는 교회'가 되고자 사역활동과 더불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할인혜택과 초대권 증정, 공연정보 제공 등 부대서비스로 문화생활품의 필수품으로 사랑받으며 단체가입이 늘고 있다.

부산시립예술단 관객맞춤 공연 2025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희망 기관 추가 모집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특별한 순간,
2025년 부산시립예술단이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 갑니다.

■ 운영 개요

- 접수기간 : 2025. 2. 24. ~ 2025. 3. 16.
- 공연기간 : 2025. 4. 1. ~ 2025. 12. 31.
- 공연단체 :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공연규모 및 성격 : 행사 및 단체 특성에 따른 협의로 진행
※ 단, 특정 종교나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은 신청 불가
- 소요시간 : 40분 이내
- 신청가능행사 : 부산지역 부산시민을 위한 행사
(복지관 등 문화 필요 계층)
- 접수방법 : 전자우편 bsccityart_go@bscc.or.kr
※ 접수마감 후 선정 회의를 거쳐 공연 단체, 공연 일정, 프로그램 선정
- 참가비 : 무료(단, 조명, 음향 등 공연 진행에 필요한 시설, 경비는 기관 부담)

■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051-607-3112)

2025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 모집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는
부산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에 주역이 될 참신하고
유능한 신규단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단원 모집 개요

- 응시 자격 : 노래에 소질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할 수 있는
부산시 거주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 '25년 3월 학기 기준)
- 모집 인원 : 00명
- 모집 조건

공연출연 및 연습참여	✓ 주 3회 연습 참여 - 초등학교 ~ 중학교 : 화, 목(17:30~20:00), 토(10:00~12:30) ※ 내부사정에 따라 연습일정은 변동 가능 ✓ 공연 편성 시 공연 출연
혜택	✓ 연습 출석 시 : 간식 및 교통비(연주단원) 제공 ✓ 연주에 관련된 연주복 및 단체복 제공 ✓ 공연 활동 시 : 자원봉사 시간 부여 ✓ 우수단원 표창 ✓ 해외공연 참가 기회 부여 (우수단원 우선 참여) ✓ 외부공연 참여 시 소정의 공연수당 지급

일정 및 방법

전형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2025.2.18.(화) ~ 3.5.(수)	2025.3.5.(수) ~ 3.18.(화) (*14:00 마감)	
실기/면접 일시	전형장소	합격자발표
2025.3.22.(토) 13:00 ~ ※ 12:30까지 대기실 입실 완료	부산문화회관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2025.3.25.(화) 17:00 (예정)

과제

구분	세부내용
실기 전형	자유곡 악보 제출(*응시원서와 함께 + 4P 이내 PDF파일) ※ 반주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반주자가 진행 ※ 당일 전형 시에 자유곡 악보를 출력해서 가지고 올 것
	공통 1. 발성 테스트 2. 애국가 1~4절 외워서 부르기 3. 음감 테스트 : 피아노로 치는 3~4개 연결음을 따라 부르기
면접전형	응시자 면접 : 자기소개 및 특기 소개 ※ 당일 전형 시에 부모님은 전형 장소 밖에서 대기
※ 합격자 선정 기준 심사위원 (상), (중), (하) 평가하여 (하)를 받지 않은 응시자	

응시원서 접수방법

응시원서 접수방법

접수방법

- ① 해당 공고문 첨부파일 「응시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② 2025.3.18.(목) 14시까지 e-mail 접수 : thjjang77@bscc.or.kr
- 첨부파일 및 메일 제목 : "2024 응시원서-홍길동(응시자 이름)"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접수시간까지 확인된 메일만 접수인정

- ✓ 준비서류 : 응시원서 1부, 자유곡 악보(4p 이내) 1부
-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 접수 후, 접수번호 개별 회신
- 전형당일 : 재학증명서(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 신규단원 O/T : 2025.3.27.(목) 18시 30분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 최종 합격단원 및 단원 보호자 1명 동반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예술단운영팀 051-607-3131

부산문화회관 주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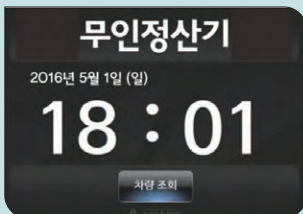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을 찾으시는 고객님의 보다 나은 편의를 위해
기존 주차요금제가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새롭게 설치된 사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출구에서 기다림 없이 빠른 출차가 가능합니다.

P 주차요금 안내

주차시간	요금	할인 대상	
입차 후 4시간 이내	2,000원	- 정기회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 경차, 친환경, 다자녀, 요일제 - 다회(2회 이상) 수강등록한 아카데미 수강생	50%
4시간 이후 10분당	200원		
1일 최대	4,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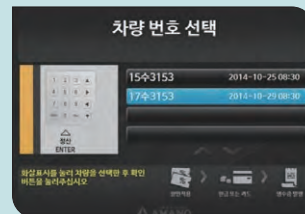
P 무인정산기 등록안내



Step 1 차량조회 선택



Step 2 차량번호 입력



Step 3 차량선택



Step 4 바코드 할인 후 결제
(바코드 할인 인식 후 폐기)

정기회원 주차 안내

- **무료주차권 사용** 기존의 정기회원 주차쿠폰은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우편을 통해 새로운 바코드주차권을 발송해드렸습니다.
주차권을 수령하지 못한 회원들은 고객센터(607-6000)로 연락바랍니다.
- **주차요금 할인** 기존 정기회원카드 제시가 아닌 사전 등록 차량에 회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하며, 정기회원 기간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 등록 방법** E-메일(cus@bscc.or.kr),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 차량번호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 607-6000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5 상반기 공연프로그램(1월~6월)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일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일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마감은 공연 1일전 14시 ※ 취소마감은 공연 1일전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5. 1-6월

January - Jun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2025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문화 | 중극장 챔버홀 2025. 1. 4.(토) 5:00pm,
1. 8.(수), 1. 10.(금), 1. 14.(화), 1. 17.(금) 7:30pm
• 예술감독 | 김동욱 ※ 7세 이상 관람



2024-25 린 전국투어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5. 1. 4.(토) 1:00pm, 6:00pm
R석 143,000원 S석 132,000원



2025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with 조수미

문화 | 대극장 2025. 1. 11.(토) 5:00pm
VIP석 150,000원 R석 130,000원 S석 110,000원 A석 90,000원
• 지휘 | 요하네스 빌드너 • 협연 | 소프라노 조수미
• 연주 |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 7세 이상 관람



부산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시리즈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문화 | 중극장
전석 20,000원
#1. 2025. 1. 23.(목) 7:30pm - 1. 24.(금) 11:00am | with 박진우
#2. 2025. 3. 25.(화) 7:30pm - 3. 26.(수) 11:00am | with 조인혁
#3. 2025. 7. 24.(목) 7:30pm - 7. 25.(금) 11:00am | with 조성현
#4. 2025. 8. 28.(목) 7:30pm - 8. 29.(금) 11:00am | with 브랜든 최
#5. 2025. 10. 30.(목) 7:30pm - 10. 31.(금) 11:00am | with 황세희
• 지휘, 해설 | 홍석원, 백승현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7세 이상 관람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문화 | 대극장
R석 30,000원 S석 20,000원
2025. 2. 20.(목) 7:30pm #1.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 브람스 교향곡 제2번
• 지휘 | 장윤성 • 피아노 |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2025. 4. 4.(금) 7:30pm #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브람스 교향곡 제1번
• 지휘 | 지중배 • 바이올린 | 김다미
2025. 5. 29.(목) 7:30pm #3. 부산네오폐하모닉오케스트라 | 브람스 교향곡 제4번
• 지휘 | 홍성택 • 피아노 | 노윤화
2025. 7. 25.(금) 7:30pm #4.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 브람스 교향곡 제3번
• 지휘 | 윤상운 • 비올라 | 김남중 • 클라리넷 | 백동훈
※ 7세 이상 관람



압도적 박력으로 넘나드는 장르의 경계, 록 그너머의 록 잠비나이 콘서트 with 미역수염

문화 | 중극장 2025. 3. 15.(토) 5:00pm
전석 40,000원
• 출연 | 잠비나이
• 서포트 액트 | 미역수염
※ 7세 이상 관람



두 남녀의 만남과 사랑을 그린 연극 <랑데부>

문화 | 중극장 2025. 4. 4.(금) 7:30pm, 4. 5.(토) 3: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작·연출 | Yossef K 김정환
※ 7세 이상 관람



한국 창작뮤지컬 최초 그랜드슬램 달성 뮤지컬 <웃는 남자>

문화 | 대극장 2025. 4. 22.(화)-26.(토) 화-목요일 7:30pm,
금요일 2:30pm, 7:30, 토요일 2:00pm, 7:00pm
R석 170,000원 S석 140,000원 A석 110,000원 B석 8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독일 고전주의 전통의 정수 크리스티안 테슬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5. 5. 2.(금) 7:3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7세 이상 관람



서로 다른 음악적 깊이가 만나 빛어내는 우정의 선율 김영옥 & 김다솔 듀오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5. 5. 3.(토) 5: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 바이올린 | 김영옥
• 피아노 | 김다솔
※ 7세 이상 관람



세상의 다양한 존재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춤 국립현대무용단 <암! 암! 암!>

문화 | 중극장 2025. 6. 14.(토)-6. 15.(일) 2:00pm
R석 20,000원 S석 10,000원
• 안무 | 뱌닝쿨, 인정주
※ 48개월 이상 관람



새로운 한 해를 알리는 '천상의 화음'

2025 빈 소년합창단

시민 | 대극장 2025. 1. 23.(목) 7:30pm
VIP석 88,000원 R석 66,000원 S석 44,000원
A석 22,000원

• 지휘 | Oliver Stech
※ 7세 이상 관람



황치열 The Special

시민 | 대극장 2025. 2. 15.(토) 5:00pm
VIP 99,000원 R석 88,000원 S석 77,000원 A석 55,000원
※ 7세 이상 관람



독보적인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살롱 드 바이올린 I <대니 구>

시민 | 소극장 2025. 2. 21.(금) 7:30pm
R석 44,000원 S석 33,000원
※ 7세 이상 관람



잊고 있던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해주는 특별한 작품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시민 | 전시실 2025. 3. 7.(금) 2:00pm, 7:30pm
8.(토) 2:00pm, 5:00pm
전석 30,000원
• 프로듀서 | 석재원 • 연출 | 오경택
• 출연 | 김아영, 정새별
• 제작 | 크리에이티브테이블 석영
※ 13세 이상 관람



LG아트센터 제작 / 사이먼 스톤 연출

연극 <벚꽃동산>

시민 | 대극장 2025. 3. 13.(목)-14.(금) 7:30pm
3. 15.(토) 3:00pm
VIP석 11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13세 이상 관람



감성의 키가 한 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키즈송 위드 클래식>**

시민 | 소극장 2025. 3. 15.(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5세 이상 관람



진화와 변화를 멈추지 않는 영원한 현역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시민 | 대극장 2025. 3. 29.(토) 6:00pm, 30.(일) 4:00pm
R석 154,000원 S석 132,000원
※ 7세 이상 관람



19년만에 돌아온 뮤지컬

돈주앙 - 프렌치 오리지널 내한공연

시민 | 대극장 2025. 4. 25.(금) 7:30pm,
27.(토)-27.(일) 2:00pm, 6:30pm
R석 170,000원 S석 140,000원 A석 110,000원 B석 80,000원
※ 8세 이상 관람



도심 속 문화 쉼터

2025 시민뜨락축제

시민 | 야외광장 2025. 4. 25.(금), 5. 2.(금),
5. 9.(금), 5. 16.(금) 12:10pm
무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감성의 키가 한 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클래식 댄스! 댄스!>**

시민 | 소극장 2025. 5. 3.(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5세 이상 관람



정태춘&박은옥 콘서트

시민 | 대극장 2025. 5. 17.(토) 5:00pm
VIP석 121,000원 R석 99,000원 S석 88,000원
A석 66,000원
※ 7세 이상 관람



캐나다 대표 오케스트라와
대한민국 간판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만들어내는 울림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시민 | 대극장 2025. 5. 29.(목) 7:30pm
VIP석 150,000원 R석 130,000원 S석 90,000원
A석 50,000원
※ 7세 이상 관람



뮤지컬 '파가니니'의 주인공, '지붕 위의 바이올린' '모비딕' '페임' 주역
살롱 드 바이올린 II <KoN(콘)>

시민 | 소극장 2025. 6. 20.(금) 7:30pm
R석 44,000원 S석 33,000원
※ 7세 이상 관람



2025년 제5회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초청작
<당신은 지금 바비레마에 살고 있군요>

시민 | 소극장 2025. 6. 27.(금) 8:00pm
6. 28.(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출연 | 강애심, 장은정, 최지연, 김혜숙, 조민수
※ 36개월 이상 관람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5. 1. 9.(목) 7:30pm
• 지휘 | 홍석원



제616회 정기연주회

RHAPSODY & CAPRICC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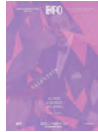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2025. 1. 10.(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피아노 | 이진상



제617회 정기연주회

VALENTIN

문화 | 대극장 2025. 2. 14.(금) 7:30pm
• 지휘 | 백승현
• 바이올린 | 박은중



기획음악회

실내악시리즈 1

문화 | 중극장 2025. 2. 21.(금) 7:30pm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5. 3. 5.(수) 7:30pm
• 지휘 | 홍석원



©함필주

제618회 정기연주회

(ENT)SPANNUNG

문화 | 중극장 2025. 3. 6.(목)~3. 7.(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바이올린 | 최송하, 유다윤



제619회 정기연주회

PARADISO

문화 | 대극장 2025. 4. 11.(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소프라노 | 박미자



기획음악회 실내악시리즈 2

문화 | 챔버홀 2025. 4. 30.(화) 7:30pm



제620회 정기연주회

NEW WORLD

부산콘서트홀 2025. 5. 23.(금) 7:30pm
• 지휘 | 홍석원



©함필주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5. 6. 18.(수) 7:30pm
• 지휘 | 홍석원



제621회 정기연주회

DSCH

문화 | 대극장 2025. 6. 19.(목) 7:30pm
• 지휘 | 홍석원
• 첼로 | 최하영



©andrei-gric

부산시립합창단

제195회 정기연주회

벤자민 브리튼 <봄의 교향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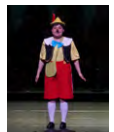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2025. 3. 13.(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협연 | 최정원, 이아경, 김효중, 김대영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합창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196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문화 | 대극장 2025. 5. 3.(토) 11:00am, 3:00pm,
5. 4.(일) 5:00pm
• 지휘 | 이기선, 임희준
• 연주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310밴드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전쟁과 평화 그리고 희망>

문화 | 중극장 2025. 6. 20.(금) 7:30pm
• 지휘 | 성상철



제197회 정기연주회
2025 SUMMER FANTASY

문화 | 대극장 2025. 7. 24.(목) 7:30pm
• 지휘 | 이기선



제192회 정기공연
해외 안무가 프로젝트(가제)

문화 | 대극장 2025. 11. 7.(금) 7:30pm, 11. 8.(토) 3:00pm
• 연출 | 이정윤



제198회 정기연주회
광복80주년 기념음악회 <Song of Arirang>

문화 | 대극장 2025. 9. 18.(목) 7:30pm
• 지휘 | 이기선



특별공연
홀로홀출

문화 | 중극장 2025. 12. 5.(금) 7:30pm, 12. 6.(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윤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6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28.(화)-10. 30.(목) 7:00pm
• 지휘 | 이기선, 임희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9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 <부산, 바다>

문화 | 대극장 2025. 3. 27.(목) 7:30pm
• 지휘 | 이동훈



제199회 정기연주회
세계의 합창음악 여행

문화 | 중극장 2025. 11. 18.(화) 7:30pm
• 지휘 | 임희준



특별연주회
국악 브런치 콘서트 <국악 살롱, Salon>

문화 | 중극장 2025. 4. 23.(수) 11:00am
• 지휘 | 이동훈



제200회 정기연주회
현대 오라토리오 2 <이 시대의 한 아이>

문화 | 대극장 2025. 12. 4.(목) 7:30pm
• 지휘 | 이기선



부산시립무용단

제191회 정기공연
남풍

문화 | 대극장 2025. 5. 9.(금) 7:30pm,
5. 10.(토) 3:00pm
• 연출 | 이정윤



제230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I
부산국악작곡가협회와 함께하는
<초연의 밤>**

문화 | 대극장 2025. 6. 24.(화)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문화 | 중극장 2025. 7. 22.(화)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공연
이정윤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5. 7. 11.(금) 7:30pm, 7. 12.(토) 3:00pm
• 연출 | 이정윤



부산시립극단

제79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_창작초연 <오롯이 빛나는>

시민 | 소극장 2025. 3. 28.(금) 7:30pm, 3. 29.(토) 5:00pm
• 작, 연출 | 차승호



제79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_창작초연 <초월자>

시민 | 소극장 2025. 4. 4.(금) 7:30pm, 4. 5.(토) 5:00pm
• 작, 연출 | 김민우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문화 | 사랑채극장 2025. 6. 6.(금)-7. 6.(일)
주말 공휴일 11:00am, 2:00pm
• 작 | 김영화 • 작곡 | 이영재
• 연출 |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6회 정기연주회 메멘토

문화 | 대극장 2025. 4. 1.(화)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2025 솔로리스트들의축제

문화 | 대극장 2025. 5. 13.(화)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5. 6. 14.(토) 5:00pm



제77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5. 9. 16.(화)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Friendly Concert

문화 | 중극장 2025. 3. 29.(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66회 정기연주회 엄마 같이 걸어요

문화 | 대극장 2025. 5. 31.(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67회 정기연주회 평화의 노래 Song of Peace

문화 | 대극장 2025. 9.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특별연주회 제36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31.(금)-11. 1.(토) 5:00pm
• 출연 | 부산시내 중·고등학교 합창단 및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8회 정기연주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며

문화 | 대극장 2025. 12.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5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연극 <이단자들> **종료**

2024년 10월 25일(금) 오후 7:30, 10월 2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종료**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4 제아음악회 **종료**

2024년 12월 31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5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종료**

2025년 1월 4일(토) 오후 5:00, 8일(수), 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14일(화), 17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회차별 20매)

2025 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with 조수미 **종료**

2025년 1월 11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20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종료**

2025년 1월 17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7:30, 24일(금) 오전 11:00 **종료**
 3월 25일(화) 오후 7:30, 26일(수) 오전 11:00
 7월 24일(목) 오후 7:30, 25일(금) 오전 11:00
 8월 28일(목) 오후 7:30, 29일(금) 오전 11:00
 10월 30일(목) 오후 7:30, 31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2025 빈 소년 합창단 **종료**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1.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KO) **종료**

2025년 2월 20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2025년 3월 7일(금) 오후 2:00, 7:30
 8일(토)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전시실(회차별 10매)

잠비나이x미역수염 콘서트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2025년 3월 15일(토), 5월 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2025년 4월 4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연극 <랑데부> **종료**

2025년 4월 4일(금) 오후 7:30, 5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종료**

2025년 5월 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30매)

김영욱&김다솔 듀오 콘서트 **종료**

2025년 5월 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3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3.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2025년 5월 2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종료**

2025년 5월 29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커넥션 3

<압! 압! 압!>

2025년 6월 14일(토)-6월 15일(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살롱 드 바이올린

KoN(콘) 토크 콘서트 **종료**

2025년 6월 20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관객참여형 감성치유 프로젝트

<당신은 지금 바바레따에 살고 있군요>

2025년 6월 27일(금) 오후 8:00, 2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25년 7월 2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홍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주)코팩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임말섭
(주)미성하이텍

* 이사회원

강대일
강서룡
곽국민
권한상
웰딩시스템 대표
효승테크 대표이사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김성우
김암우
김홍재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전)연제구의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607-6072)

※ 일반회원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신한춘 (주)금정화운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이은석 (주)엘제이이엔에스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엔(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명인제약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손혜경 손내과의원 원장
안금주 하나유치원 원장
안진우 경성대학교 교수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성임 엘가 대표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명선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원장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숙편한내과 원장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허혜영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회원명 가나다순

각설이 엄마와 틱장애 야구선수 아들의 장터 여행기

오롯이 빛나는

03.28 FRI ~ 29 SAT

평일 19:30, 토요일 17:00

작·연출

차승호

출연

이현주, 이혁우, 염지선, 조정우
채민수, 윤영식, 이수현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극단 제79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2025 창작초연

티켓가격 전석 20,000원
문의전화 051)607-6000 (ARS 1번)

장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작·연출

김민우

출연

황창기, 김은희, 오희경
김은옥, 서보기, 이태성
박규한, 김성열, 전용균, 주형준

첩보 심리 드라마

초월자

04.04 FRI ~ 05 SAT

평일 19:30, 토요일 17:00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 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구(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고객지원팀(607-6071)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 참여기간 : 2025. 2. 27.(목)~3. 19.(수)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5. 3. 25.(화)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5년 2월호 낱말퍼즐 당첨자 명단

010-****-4832

010-****-7633

010-****-7940

010-****-7595

010-****-6722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COUPON



공간 소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지하 242
(지하철 2호선 대연역사내)
051)611-8518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공간 소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씨구 삼총사와 함께하는 자총우돌 국악인형극



일씨구 왕국의 삼총사

2025. 3. 5.(수) ~ 6. 1.(일) 평일 10:30, 주말 및 공휴일 11: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주최·주관 부산문화회관
티켓 20,000원

제작 GIVA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문의 및 예매 051-607-6000 www.bscc.or.kr
* 매주 월요일·화요일 공연 없음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초대권 또는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2025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홍석원



BPO SYMPHONIC SEASON 2025
Seokwon Hong, artistic director

PARADISO

버르토크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Bartók / Piano Concerto No.3

말러 / 교향곡 제4번
Mahler / Symphony No.4

*

지휘 홍석원 / 피아노 박재홍 / 소프라노 박미자

619

2025.4.11 (금)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ww.bscc.or.kr

JAMBINAI

잠비나이 콘서트
+SUPPORT ACT:

SEAWEED
MUSTACHE



2025. 3. 15. SAT 1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지휘 및 해설 **홍석원**(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백승현**(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헝가리 1. 23(목) 19:30 / 1. 24(금) 11:00

지휘 및 해설 홍석원 피아노 박진우

아메리카 3. 25(화) 19:30 / 3. 26(수) 11:00

지휘 및 해설 백승현 클라리넷 조인혁

북유럽 7. 24(목) 19:30 / 7. 25(금) 11:00

지휘 및 해설 백승현 플루트 조성현

프랑스 8. 28(목) 19:30 / 8. 29(금) 11:00

지휘 및 해설 홍석원 색소폰 브랜든 최

영국 10. 30(목) 19:30 / 10. 31(금) 11:00

지휘 및 해설 홍석원 하프 황세희

2025년도 하반기 (재)부산문화회관 정기대관 안내

대상

- 부산문화회관 : 공연장(대/중/챔버홀), 전시실
※ 사랑채극장은 연간 기획공연 진행에 따라 대관 불가
- 부산시민회관 : 공연장(대/소극장), 전시실
- 휴관일 안내 :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공연장과 전시실 대관 불가
※ 셋업, 철수, 운영 등 작업 불가(대관 시 휴관일은 대관료에 미포함)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중복 접수 불가

대관내용

- 대관기간 : 2025. 7. 1.(화) ~ 12. 31.(수) (6개월)
- 대관가능일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대관 공지사항 참조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3. 14.(금) 09:00 ~ 3. 28.(금)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bscc.or.kr/rental/)
- 결과회신 : 2025년 4월 예정

대관심의 우선기준

- 기초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의 공연(행사) 및 전시는 대관 제외

대관신청 및 승인절차

- 신청 및 접수 → 대관심의 → 심의회 결과 통보

사용료 납부

- 계약금(대관료의 20%) : 시설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 체결
- 잔금 : 공연/전시 예정일 30일전(대극장 60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80% 납부
※ 납부기한 내 계약금 미입금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 승인이 자동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취소 이력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사용예정일이 대관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계약금과 잔금 동시에 납부

대관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 (재)부산문화회관 대관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 첨부
※ 공연/전시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 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장 담당 : 051-607-6075
- 부산시민회관 공연장 담당 : 051-607-6074
- 부산문화·시민회관 전시실 담당 : 051-607-6121, 6127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Sound of Busan #1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브람스 교향곡 No.2 외

2025. 2. 20.(목) 19:30

Sound of Busan #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브람스 교향곡 No.1 외

2025. 4. 4.(금) 19:30

Sound of Busan #3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브람스 교향곡 No.4 외

2025. 5. 29.(목) 19:30

Sound of Busan #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브람스 교향곡 No.3 외

2025. 7. 25.(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30,000원, S석 20,000원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문의 051-607-6000(ARS 1번)



J. Brahms



연극 R E N D E Z — V O U S
라 데부



박성웅 이수경

2025.4.4 금 19:30 | 4.5 토 1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